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747.95 (+231.68)		753.34 (+3.70)
	금리 (국고채 5년)		환율 (원·달러)
	3.880 (-0.015)		1475.35 (-3.05)



‘셀 코리아’ 채권·부동산 전방위 확산 공포

美-이란 ‘격화’ 각국 중앙은행 긴축 헤지펀드 ‘디레버리징’ 진행하고 외국인, 올해 코스피 160조 매도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 “메모리주 투자비중 축소 권고”

한국 반도체주를 주로 팔던 외국인들의 경계감이 다른 자산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서자 위험 자산 회피(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몇몇 해외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금융기관의 독축을 받은 헤지펀드나 투자자들은 자산을 파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축소)’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산시장이 새로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직면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한국경제의 구조(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경계감도 시장 참여를 꺼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의 한국 탈출은 국내 자산가격 하락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달러 사자’ 주문으로 이어져 환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 160조원을 순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모습. 이 가운데 서울 용산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평택시, 강원 속초시·고성군 등 5곳(862.8만㎡)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용산에서는 국방부 경계 외곽의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매도했다. 지난해 전체 순매도(4조6000억원) 물량의 33.78%가 넘는 물량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올해들어서만 각각 78조원, 64조원 순매도 했다.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끈 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셀 코리아’인 셈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들도 한국 투자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모

건스탠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좁은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시장 주도권이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의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20일에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제시했다. UBS는 지

난 7일 고객 노트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에탁증서(ADR)는 매수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된 보통주는 매도하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안베스코의 윌리엄 램 공동대표는 “올해 아시아 펀드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60% 이상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면에 계속>

/신화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로봇 정예팀’ 구성… 380억 달러 시장 잡는다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 전망>

노태문 직속 ‘RX 사업추진실’ 신설 우면동 ‘서울R&D캠퍼스’ 메인 거점 이동건 부사장·김현진 교수 등 합류 분야별 최고 전문가 추가영입 계획

삼성전자가 로봇을 반도체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키운다. 대표이사 직속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고 노태문 대표가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양산에 돌입하자 흩어져 있던 로봇 역량을 한데 모아 추격에 나선 것이다.

21일 삼성전자는 차세대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태문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속 RX(Robotics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노대표가 직접 조직을 이끌며 중장기 로봇 전략 수립부터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신설되는 RX사업추진실은 서울 우면동 서울R&D캠퍼스를 메인 거점으로 삼아 로봇 관련 인력의 근무지를 통합한다.

로봇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오피스와 실험실 등 업무 인프라 투자도 지속한다.

구미사업장에는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한다. 로봇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현장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R&D캠퍼스 연구조직과 협업을 로봇 지능화·제어 고도화를 추진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체계와 데이터 팩토리, 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19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중국·일본에는 글로벌 연구거점을 두고 현지 특화 기술·생태계 활용과 우수인재 확보에 나선다.

조직 격상의 배경에는 양산 국면에 진입한 휴머노이드 시장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 올해 휴머노이드가 연구개발(R&D)을 넘어 양산·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는 원년으로 진단했다. 실제 테슬라는 이달 중 ‘옵티머스’ 초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규어 AI와 중

국 유니트리 등도 양산 경쟁에 가세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2035년 3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사업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로봇 주요 부품 내재화를 통해 맞춤형 부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중”이라며 “우선 제조형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을 홈·리테일 분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 영입도 이어진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보스톤다이나믹스 운영 방향을 포함한 로봇 전략을 주도한 이동건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이 로보틱스전략팀장으로 선임돼 중장기 로봇사업 로드맵을 맡는다. 지능형 자율 로봇 시스템·로봇제어 분야 석학인 김현진 서울대 교수와 로봇 핸드·매니퓰레이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낸 김의겸 이주대 교수도 합

류한다. 삼성전자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신설로 사내에 분산돼 있던 로봇 조직은 일원화 수순을 밟는다. 삼성전자는 DX부문 산하 미래로봇추진단, 삼성리서치 내 로봇 연구인력, 생식기술연구소 등으로 나뉜 로봇 R&D사업화 조직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업계에서는 독자 생산라인과 수익성이 확보되면 정식 ‘사업부’로 승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2021년 로봇사업화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이듬해 로봇사업팀을 정규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2023년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590억원을 투자했으며 2024년 말 콜옵션 행사로 지분율을 35.0%까지 확대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매출 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7% 성장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91억 원을 기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부동산 공급대책 속도 실수요자 지원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된 보완책은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영업이익 배분이 노동쟁의의 범위인지도 모호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불평등 주요원인 국민의견 경청, 대안 만들 것”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만들라 영업이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이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투기가 경제발전의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부동산 정상화가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사회적 역동성 복원·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오는 23일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코스피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6일 당국이 마련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보완책이 내달 5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두고 “시행자체를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대응 조치가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를 규정하는 기준이 광범위하다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나. 저 같은 경우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정점식-이준석, 보완수사권 등 논의 합당 “전혀” /사진 뉴시스
▲정청래 측 “후보 차량 파손 유감” 김민석 “즉각 진상 파악”

▲북중 무역, 올 상반기 15억 달러 돌파 2017년 이후 최대
▲경찰청 “전 계급 순환근무 사실무근”…직협 “순환근무 폐지해야”

▲‘래커칠 시위’ 성신여대 5명 불구속 기소 5명 기소유예
▲내달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3배수 추진다…추천위 회의

미국-이란, ‘전면전’ 일촉즉발 주변국 ‘추가 휴전안’ 진화 시도

양국 지속 충돌… 피해규모 커져
트럼프 행정부, 자국민에 위험 고지
이란 대통령 “마지막까지 싸울 것”

미군이 지난주에 이어 대 이란 공습을 2주째 퍼부었다. 이란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한다는 방침을 자국민에게 알렸다. 미국무부는 중동지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X(엑스)’를 통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한국 21일 오전 5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지하 미사일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브리즈와 이란 민간 원전이 위치한 부셰르 일대가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습으로 걸프국 주둔 미군병사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이란은 엄청난 규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 측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숨진 요르단 미군기지 병사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실종된 병사 1명의 유해 여부는 DNA 감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라크에서는 이란 드론을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병사 1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올해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측 사망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이란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자국민 사망자 수가 50명, 부상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서 “이란은 현재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적들은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란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단합과 결속”이라며 항전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도 자국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고지했다. 미 국무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 밖의 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는 중동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부는 그간 “중동지역 외 미국 외교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이나 미국인과 관련한 시설과 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미국이 추가 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에 따르면 서아시아 지역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10일간의 휴전안을 제안했다.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이집트 등이 새로운 휴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안은, 교전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해 유명무실화된 미-이란 간 중전 양해각서(MOU)를 되살린다는 내용이다. /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법정 최후기간인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

신진서, 카타고 꺾었다… 인간 vs AI 새 역사

알파고 이후 10년만에 AI 제압

바둑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사진)이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와 대결에서 1패 후 2연승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신진서 9단은 21일 서울 중구 청파로의 한국경제TV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첼수학·한경 기진전’ 3국에서 221수 만에 11집 반승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17일 진행된 1국에서 245수 만에 흑 불계 패했으나, 19일 2국에서 4시간50여분에 걸친 혈투 끝에 290수 만에 4집 반 승을 거뒀다. 그리고 이날 2연승을 거두면서 역전승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이 AI 알파고에 1승4패로 진 이후 10년 만에 펼쳐진 인간과 AI의 재대결이었다. 인간이 10년 만에 AI를 제압하면서 설욕했다.

신 9단이 상대한 카타고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로, 현재 프로기사들의 연구와 훈련, 바둑 중계 해설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바둑 AI다.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총 1억원의 승리 수당(1승당 5000만원)과 고급 세단 제네시스 G90을 받게 됐다.

신진서 9단은 대국 후 한국기원을 통해 “오늘 대국은 큰 전투 없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끌었다”며 “더 잘 둔 바둑은 3국이지만,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2국의 승리가 더 뿌듯했다”고 총평했다.

AI와의 접바둑에 대해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2점 접바둑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 두면 여전히 힘든 승부여서 유리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 “2점 접바둑에서 AI에게 2~3집 정도의 틈을 준다면 매우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도전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진서는 “1국패배 후에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들 덕분에 2국과 3국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카타르산 LNG 공급 위축… 북미 중심 재편

운송거리 증가로 ‘톤마일 효과’
중장기적 LNG선 발주 압력 커져

중동 분쟁 여파로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LNG 교역이 북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톤마일 효과’로 중장기적으로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3~6월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의 LNG 선적량은 전년 동기 대비 350억㎥ 감소했다. 부족분은 북미·아프리카 신규 프로젝트와 다른 생산국 물량이 대체했다. 한국의 수입 지형도 급변했다. 한 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지 지난해 카타르산 LNG 수입량은 696만6610톤(14.9%)으로 수입국 3위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9% 감소한 160만5286톤(7.2%)으로 5위까지 밀렸다. 특히 4~6월에는 카타르산 LNG 수입이 전무했다.

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 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는 자원 수출이 어



한화오션이 건조한 LNG운반선. /한화오션

렵다. 카타르산 LNG 의존도가 약 14%인 한국은 당분간 북미산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카타르 라스라판에서는 14개 액화 트레인 중 2개가 파손돼 연간 1280만톤 규모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완전 복구에는 3~5년이 걸리고, ‘노스필드 이스트(NFE)’ 확장 프로젝트 가동도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공급선 이동은 운송 거리 증가로 이어진다. 중동~극동아시아 항로는 약 2주가 걸리지만, 북미~극동아시아 항로는 약한 달이 소요된다. 같은 물량을 운송하는 데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한 ‘톤마일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다. 카타르산 LNG를 수입

하던 다른 국가들까지 북미산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원거리 운송 수요와 선박 발주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클릭스리서치 집계상 올해 상반기 글로벌 LNG선 발주는 4700만 CGT·54척으로 전년 동기 600만 CGT·7척의 약 8배로 늘었다. 다만 2분기 발주는 19척으로 1분기 35척보다 적어 중동 전쟁의 즉각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상반기 발주는 미국·캐나다·아프리카 신규 프로젝트와 노후선 교체 수요가 주도했다. 업계는 카타르 수출 회복이 늦어지고 북미 프로젝트 가동이 빨라질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추가 발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다만 카타르산 감소분이 모두 북미산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LNG 수요는 도시가스·발전용이 대부분이지만, LNG 발전은 원전·석탄의 전력 공급을 보완한다.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대체 수입보다 LNG 발전 비중을 낮추고 다른 발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국방부, 용산 등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

2916만㎡ 규모… 지역균형발전 도모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군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등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약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성군과 속초시, 평택시, 고양시, 용산구 등 5곳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이 없어지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의 탄약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것

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수색비행장은 전·평시 지원항공작전 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헬기 전용작전기지로 바뀐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 전사업으로 기존 활주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위험자산 밸류에이션 조정” 이어져”

》1면 ‘셀코리아 채권·부동산’서 계속

호주계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사 모투자합자회사 제6호는 특수목적법인(SPC) 디씨케이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오는 9월 17일까지 가비아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공개매수 대상은 가비아의 발행주식 1342만684주 가운데 최대주주 측 보유 주식과 자기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 980만5505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73.1%에 해당한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EQT는 공개매수를 통해 더존비즈온을 상장폐지 시켰다.

채권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을까. 절반은 맞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6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채권자금은 16억5000만달러 순유입이었다. 전월 56억8000만달러의 3분의 1도 안된다.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가 무색할 정도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발당 시장을 장악했던 외국계 투자자들의 국내 발당 투자

움직임도 주춤하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의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보면 올 1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 규모는 6조2536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감소했다. 중동전쟁이 격화하고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유동성에 발목을 잡는 영향으로 보인다.

상가포르게 ARA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 2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에 서울역 인근 대형 오피스 빌딩 ‘서울스퀘어’를 팔았다. 매각대금은 1조2855억원으로 분기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자산 매각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건전성 회복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작용이 크다. 우선 국내의 자산가치의 하락이다. 국제금융센터는 7월 글로벌 리스크 위치에서 리스크 1위로 ‘위험자산 가격조정’을 꼽았다. 국제금융센터는 “고금리, 인공지능 투자 버블 우려, 강달러 등을 반영해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리스크가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美, 애플 '中 메모리' 제동... 삼성·SK, 반사익·리스크 교차

美 의회 中 메모리 사용 제한 요구
CXMT의 애플 공급망 진입 제동

삼성·SK 기존 납품 물량 방어 기대
수급난 속 가격 협상력 유지 가능

갈등 격화 땀 현지 공장 운영 부담
中 시장 판매 불확실성 확대 우려

미국 의회가 애플을 비롯한 자국 기업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의 애플 공급망 진입이 무산될 경우 국내 메모리 업체가 기존 고객사 물량과 협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일방적인 수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2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지 화이트사이드 의원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의 CXMT D램과 양쯔메모리테크놀



사진은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애플 매장.

/뉴시스

로지(YMTC) 낸드플래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중국산 메모리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CXMT를 미 상무부의 엔터티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요구는 아직 의회 차원의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다.

이번 움직임은 애플이 중국 판매용 일부 제품에 CXMT D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나왔다. 애플은 최근 CXMT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신규 공급사 편입을 위한 사전 검증 단계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애플향 공급 물량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CXMT를 신규 공급사로 확

보하지 못하면 기존 거래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의 조달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공급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기존 공급사의 협상력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이를 국내 업체의 수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CXMT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모바일 D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규제로 글로벌 고객사 확보가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의 경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생산기지이자 판매 시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확대되면 중국 내 공장 운영과 첨단 장비 반입, 현지 고객사 확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국산 메모리 채택을 늘릴 경우 현지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 정부가 CXMT를 엔터티리스트에 포함할지,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가 국내 메모리 업체에 미칠 영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가 미국 기업에 국한될지,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CXMT의 애플 공급망 진입이 제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 고객사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 국내 업체에 미칠 영향을 단순히 수혜 여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예·적금 넘어 투자로 자산형성 청년형 ISA 내년 상반기 출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가입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미래적금 중복 불가 소득별 선택

청년 세대의 재테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적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면서 저축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졌고,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제도의 개편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형성의 중요성이 커져서다. 정부도 청년의 중·장기 재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출시하는 등 정책 지원에 나섰다.

◆ 내년 상반기 청년형 ISA 출시

2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청년형 ISA는 국내 증시·펀드 등 투자상품을 활용한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형 ISA는 연 7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만 19~34세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ISA 통장과 비교해 납입 한도가 높고, 납입액에 따른 비과세 혜택도 크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했다. 청년형 ISA는 기존 ISA 통장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ISA 통장에서는 허용됐던 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청년형 ISA를 출시하는 것은 예·적금 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만큼, 중·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국내 17개 소매은행이 취급한 1년물 예금 금리 평균은 3.04%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하는 2026년 물가상승률인 2.8%와 유사한 수준이다.

◆ 최적의 상품 선택해야

청년형 ISA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상품인 만큼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단, 기존 ISA 통장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의 중복 가입은 가능한 만큼 자신의 금융 성향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우선시하는 게 좋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을 36개월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45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청년형 ISA의 만기 시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로 예정된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소득이 연 6000만~7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형 ISA를 우선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7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금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제공한다. 정부 기여금을 제외한 기대 수익률은 연 5~6% 금리의 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납입 시에도 실질 이자액은 약 100만원에 그친다.

청년미래적금의 일반형 가입 대상이라면 여유 자금 규모와 투자 적극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형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을 36개월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약 34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형 ISA의 만기 시 세제 혜택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또한 기존 ISA 통장이 3년간 최대 200만원의 수익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투자액이 많지 않다면 청년미래적금을 우선시하는 게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당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죠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2031년 기판 영업익 1조 목표… AI반도체 핵심부품사 우뚝

LG이노텍이 카메라모듈 세계 1위를 넘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사로 올라서고 있다. AI 서버 발 공급난으로 고부가 기판 주문이 밀려들면서 올해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6% 늘고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회사는 2031년까지 기판 사업을 매출 3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하고 베트남과 구미에 조 단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센터로 이동하는 반도체 수요 변화를 이익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반도체 전방산업 업황 진단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7.8% 성장한 909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데이터센터가 스마트폰과 PC를 제치고 반도체 최대 수요처로 올라선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도체 수요의 무게중심이 소비자 기기에서 AI 인프라로 옮겨가면서 서버용 반도체를 떠받치는 기판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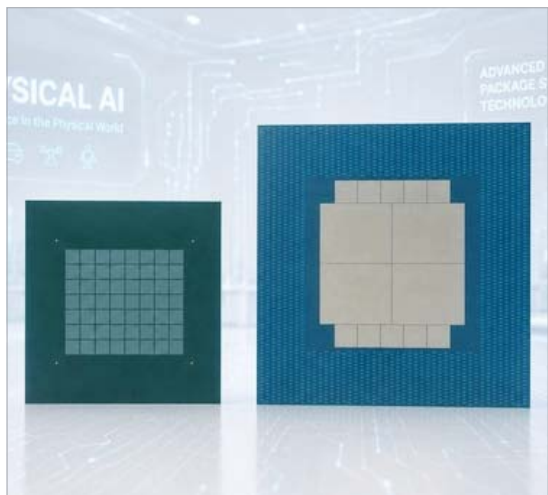
LG이노텍 마곡본사.



LG이노텍 패키징솔루션사업부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호 패키징솔루션마케팅담당(상무), 조지태 패키징솔루션사업부장(전무), 명세호 패키징솔루션개발담당(상무), 남상혁 패키징솔루션연구소장(연구위원).



LG이노텍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전경.



LG이노텍의 대면적_초대면적 FC-BGA 기판 샘플 제품 2종.



LG이노텍의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 /LG이노텍

④ LG이노텍



◆ 기판이 끌어올린 역대 최대 실적…“2031년 영업이익 1조”

LG이노텍은 올해 1분기 매출 5조5348억원과 영업이익 2953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카메라모듈 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RF-SiP(통신용 기판)과 FC-BGA(고집적 반도체용 기판) 등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공급 호조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기판이 속한 패키징솔루션사업 매출은 43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다.

기판 수요는 공급을 웃돌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에서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이 연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희박하며 공급 압박이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인쇄회로기판 등 부품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4월에는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62.7%로 올리면서 출하량 증가가 아닌 공급 부족에 따른 평균판매 가격 상승이 성장을 주도한다고 진단했다. 물량이 아닌 단가가 이익을 끌어올리는 슈퍼사이클이 반도체를 넘어 부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1분기 매출 5.5조, 영업이익 2953억 기록
카메라모듈, 반도체 기판 공급 호조
MLCC·인쇄회로기판 등 공급압박 확산

패키징솔루션사업, 지난해 영업이익 82% ↑
RF-SiP, 스마트폰서 기술 쏠아 AI로 확장
내년 서버용 FC-BGA 양산, 대면적 경쟁
베트남공장 1조 이상, 구미사업장 6000억 투자
유티아이와 유리기판 강도 강화 개발 협력

광학솔루션사업 매출, 전체 83.3% 차지
최대 고객 '애플'… 아이폰 실적에 좌우
AI발 기판 수요 연결할 생산능력 필요

LG이노텍은 이 흐름에 맞춰 기판 사업 육성 목표를 구체화했다. 조지태 LG이노텍 패키징솔루션사업부장 전무는 지난달 서울 마곡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테크데이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새로 열리는 기판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2031년까지 패키징솔루션사업을 매출 3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실제 패키징솔루션사업은 지난해 매출 1조7200억원에 영업이익 1289억원으로 이익이 전년 대비 82% 급증했다.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19%에 달하는 고수의 사업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RF-SiP와 FC-CSP(모바일 반도체용 기판), FC-BGA 등 기판 3종을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50년 넘게 축적한 기판 기술로 세계 1위 지위를 확보한 RF-SiP는 6세대 이동통신(6G)과 위성통신으로 FC-CSP는 고성능 메모리로 적용처를 넓힌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쌓아온 주전형 기판 기술을 AI 서버와 데이터센터까지 확장하는 전략이다.

황정호 LG이노텍 패키징솔루션마케팅담당 상무는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PC 등 개별 디바이스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I 반도체 클수록 기판도 커진다…2027년 서버용 양산

기판 사업의 성장은 FC-BGA가 이끌고 있다. FC-BGA는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고밀

도 기판으로 서버용 AI 반도체의 필수 부품이다. LG이노텍은 2022년 이 시장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며 양산을 확대해 왔으며 서버용 FC-BGA는 2027년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은 대면적에서 나온다. LG이노텍은 지난 5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전자부품기술학회(ECTC)에서 가로세로 85mm 대면적 FC-BGA와 이보다 면적이 40% 큰 초대면적 기판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85mm 제품은 양산 기술을 확보했고 120mm 이상 초대면적 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AI 연산량이 늘수록 반도체 칩이 커지고 칩이 커질수록 이를 받치는 기판도 넓고 정밀해져야 한다. 대면적 기판은 휘어짐 제어와 미세 회로 구현 난도가 높아 진입장벽이 큰 영역으로 꼽힌다.

생산능력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LG이노텍은 2028년까지 베트남 패키징솔루션 공장에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미사업장에도 60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베트남 신공장에서는 FC-CSP와 RF-SiP 생산능력을 우선 확대하고 FC-BGA로 투자를 넓혀갈 계획이다.

조 전무는 “베트남 공장은 패키징솔루션만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고객에 있다”며 고객사가 투자를 동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공급 부족을 우려한 고객사들이 생산능력 확보에 직접 나설 만큼 수요가 견조하다는 의미다.

차세대 기판 개발에도 나섰다. LG이노텍은 올해 1월 유리 정밀가공 전문업체 유티아이와 유리기판 강도를 높이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협력을 맺었다. 당시 문학수 LG이노텍 사장은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의 판을 바꿀 기술”이라며 협력 배경을 밝혔다.

유리기판은 기판 내부 코어층(중심층)을 유리로 대체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열에 의한 휘어짐이 적고 회로를 더 정밀하게 새길 수 있어 대면적 AI 반도체에 적합하다. LG이노텍은 구미사업장 파일렛 라인(시험생산라인)에서 연말부터 시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사 테스트를 거쳐 2027~2028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 매출 83% 카메라…편중 구조 해소 과제

다만 사업 구조의 편중은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1분기 광학솔루션사업 매출은 4조6106억원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카메라모듈의 최대 고객이 애플인 만큼 아이폰 판매 실적에 회사 전체 실적이 좌우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신제품 출시 주기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 편차가 큰 계절성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에 회사는 기판과 함께 전장 사업으로도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어플라이드 인튜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 카메라와 라이더(레이저 감지 센서), 레이더를 결합한 복합센싱모듈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은 글로벌 상위 20대 완성차 업체 중 18곳을 고객사로 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LG이노텍은 협력 범위를 자율주행에서 드론과 로봇으로 넓혀 피지컬 AI(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영역의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특정 고객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FC-BGA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다. 일본 이비덴과 신코전기공업 등 선발 업체들이 서버용 고부가 기판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LG이노텍은 기술과 고객 기반을 동시에 넓혀야 하는 상황이다. 유리기판 역시 상용화까지 수율(완성품 비율) 확보와 고객 인증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결국 AI발 기판 수요를 실적으로 연결할 생산능력 확보가 2031년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 전무는 “기판 사이즈가 커지고 층수가 많아지면 기존 캐파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고객들은 투자를 동반해 캐파를 대응해 줄 업체를 찾고 있고 그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이 땅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1%도 빠짐없이

진심을 다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고
도전하는 기업을 응원하며
튼튼함을 만들어 가는

100% 은행

100% 국내 자본 민족은행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100% 국내 자본 민족은행답게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 투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보철 무료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 기업,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NH농협은행의 '이 땅을 향한 진심'을 확인해보세요

 NH농협은행

사상 첫 800조 슈퍼예산… AI·청년·지역 미래투자에 승부

예산안 확정 전 당정협의회 개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전략 투자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통해 정리

당정이 21일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사상 첫 800조원대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도록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런 당정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8월에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하기 전 여당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 위에 있다”며 “AI(인공지능)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며,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어 갈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갈릴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한 직무대행은 “내년도 국가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 재정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는 점도 기획예산처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장관은 “결코 추가적인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또는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에 대해 저희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런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저희는 미래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향후에 청년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예결특위 위원장은 “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의 일자리 주택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부지에 어떻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 등 좀 깊이 있게 의논하고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진실로 하나 되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보도록 열심히 하겠다 (예산안 편성) 법적 기한은 확실하지 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힘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 증폭”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
“정부, ‘카지노식 투자’ 부추겨” 비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가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된 지 두 달 만에 증시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이를 도입하는 것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주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이종욱·박수영·김장겸 의원 주최)에서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다”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일상이 됐다. 오늘 주제에 포함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애당초 들어서 안 될 것을 도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해 도입됐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단일종목 ETF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주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과 패널들 모습, /박태홍 기자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해, 손익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레버리지ETF에 투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특정 종목과 고위험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레버리지ETF의 기계적인 리밸런싱 거래와 신용 투자 확대도 시장 상승기에 특정 종목으로 쏠림을 강화하고 하락기엔 반대매매와 매도 물량을 증가시켜 시장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불량 상품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도 되는 걸 왜 막나’라고 금융위원회를 다그쳤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몰랐잖나. 불과 넉달만에 불량상품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가 카지노가 된 것인데, 김 실장도 이 대통령도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범여권 공조로 필버 종결… 특검 연장안 가결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 짓고 표결에 부쳐 2차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무제한 토론회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24시간이 경과하자 2차종합특검 연장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종결시켰다. 이후 바로 표결된 2차종합특검 연장안은 재석 173인중 찬성 173표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됐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한규·김동아·전은수 의원이 무제한 토론회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종결 짓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당을 적

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조국혁신당을 당연하게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자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이후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보완수사권에 관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석 의원 5분의 3 이상이다. 현재 의석수에 따르면 299석 중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1석이기에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지으려면 12석의 조국혁신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등 범여권의 협조가 필수다. /박태홍 기자

與 전대 예비경선 돌입… 내일 결과 발표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으로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21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 압축을 위한 예비경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23일 예비경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쳐서 3인으로 압축한다. 현재 당대표에 출마한 이들은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

길(기호순) 후보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되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후보군을 8인으로 줄인다.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총 14명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박선원·이건태·이성운·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기호순) 후보 등이 등록했다.

우선 진명(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이진태·김용·박성준·서미화·임미애 후보다. 진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후보까지 포함하면 진명계 최고위원 후보는 1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

온다.

진청(진정청래)계는 한민수·이성운·최민희 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서울 마포를 당원대회 등 공개 행사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하는 등 공개적으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진명계는 진청계가 예비경선 통과를 위해 조직적으로 최고위원 ‘생일 투표’ 전략을 짰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청계 성향의 커뮤니티에 1~4월생은 최민희·이성운 후보에게, 5~8월생은 이성운·한민수 후보에게, 9~12월생은 최민희·한민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웹자보가 공유된 바 있다. 진청계 후보 3명을 예비경선에서 모두 통과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여야,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특검법 합의

특별검사 국민추천위 설치

여야는 21일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제외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추천은 국회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

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임명하기로 했다.

수사범위나 규모, 수사 기간은 추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저희는 그동안 계속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당신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가 당신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교육 지원

- 직무별 특화 교육 및 AI실무 역량 강화
-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

고령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시니어 토탈 케어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 운영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내집으로 받는 평생연금

- 주택 가격 제한 없는, 내 집으로 준비하는 노후 자산 솔루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모임통장’ 생활금융 플랫폼 확장 은행권, 고객유치 승부처 떠올라

IBK·토스·신한 등 서비스 강화
증시 자금이동 방어 역할 ‘톡톡’
소비성향 파악, 상품추천 등 활용
카카오, 잔액 11.6조 가장 많아

주요 은행이 모임통장을 단순한 친목회비 관리 수단을 넘어 종합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 번에 여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이용자 이탈률도 낮아, 모임통장이 은행권의 새로운 고객 유치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아이원뱅크(i-ONE Bank) 앱을 통해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연동하거나 신규 모임통장을 개설해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IBK모임 서비스’를 출시했다. 모임서비스를 통해 개인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생활금융 플랫폼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8월부터 기존 2000원 이턴 모임카드 발급 수수료를 없앤다. 신

한은행도 월별 모임비 사용 내역을 요약해주는 브리핑 기능과 모임원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은행들이 모임통장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모임통장이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막는 수신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고객이 모임통장을 이용하면 회비 납부와 송금, 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급여계좌와 투자,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은행 입장에서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활동을 자사 플랫폼 안에 묶어둘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셈이다.

특히 모임통장을 통해 축적되는 생활데이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모임의 성격과 회비 납부 주기, 소비처, 결제 규모 등을 분석하면 고객의 소비 성향과 금융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카드와 예·적금, 대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등 비이치아이의 확

대에도 활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 잔액이 가장 많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잔액이 2021년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8조4000억원,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된 올해 1분기에는 11조6000억원으로 늘며 전체 수신증가액의 90%를 차지해 수신 성장을 견인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모임통장이 단순한 공동계좌를 넘어 여행 경비 정산과 공동저축, 공동투자,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결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임통장이 회비를 걷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정산과 결제, 선물하기, 공동저축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 간 경쟁도 상품 금리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무이자 할부 카드로 취득세 부담 덜어요”

우리, 31일까지 할부응모 이벤트
KB, 지방세 부분 무이자 할부 진행
삼성, THE VIP 회원에 무이자 할부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취득세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높은 주택 취득세 과표 구간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찾는 고객 수요가 커졌다.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매입자의 취득세 부담이 가중되면서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 만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 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경기 지역도 0.2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 주택 취득세 과표 구간은 1주택자 기준 집값이 6억원 이하일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1%~3%(누진), 9억원 초과인 경우 3%다.

이에 따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취득세 무이자 할부 혜택을 문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 6개월 무이자 할부카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와 함께 “취득세가 너무 비싼

거야냐” 등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취득세 부담을 덜고 싶다면 카드사들의 국제·지방세 납부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이다.

실제 우리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세금 납부 할부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추가 혜택으로 6·10·12개월 국제·지방세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지급한다.

부분 무이자 할부란 카드사가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신청하면 1~3회차 유이자·4~6회차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10개월은 1~4회차 유이자·5~10회차 무이자, 12개월은 1~5회차 유이자·6~12회차 무이자 조건이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도 지방세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6개월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1~3회차 유이자·4~6회차 무이자 조건이다. 10개월,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는 일괄적으로 1~5회차는 고객 이자 부담, 6회차부터 무이자다.

우수고객(VIP)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삼성카드는 ‘더 브이아이피(TH E VIP)’ 회원에게 세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더 브이아이피 자격 조건은 삼성카드 5년 이상 이용 및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상 사용이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금리 상승기... 은행 정기예금에 ‘뭉치돈’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 965조
수신금리 인상에 보름새 15.9조 늘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다시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연 2%대로 떨어졌던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3% 수준까지 오르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예테크’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총 965조2949억원으로, 6월 말보다 15조895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8조3953억원이 늘어난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2년 10월 47조7231억원 증가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월간 증가 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기예금 잔액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은행권의 잇따른 수신금리 인상이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주력 상품인 ‘쫄쫄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p) 올렸다. 지난 20일 우리은행이 수신금리를 0.25~0.30%p 인상한 데 이은 조치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30일 ‘코드K 정기예금’의 3~6개월 만기 금리를 0.10%p, 12개월 만기 금리를 0.20%p 올린 데 이어 이달 4일 1~3~6개월 만기 금리를 0.10%p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3~6~12개월 만기 최고금리는 각각 연 3.30%, 3.40%, 3.61%로 높아졌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 주요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20%p 인상했다.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3.40%, 12개월 만기는 연 3.60%로 조정됐다. 토스뱅크 역시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올려 12개월 만기 금리

를 연 3.40%로 높였다.

은행권의 수신 경쟁은 특판 상품으로도 번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을 연 3.3%에 특별 판매한다. 오는 23일까지는 만 50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연 3.4%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을 3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다만 금리 상승기에는 자금이 장기 예금보다 6개월 안팎의 단기에 예금에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고객들이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는 수요를 보일 수 있어서다. 은행 입장에서라도 장기간 높은 고정금리를 보장해야 하는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도 예금 자금 유입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위험자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금금리가 3%대로 올라서면서 투자처를 정하지 못한 대가자금 일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기예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롯데건설, 공시체계 반영 재무적 영향 분석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롯데건설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 스탠다드 2021’과 IFRS의 S1(일반 공시 요구 사항)·S2(기후 관련 공시)를 준수해 작성됐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

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를 통해 도출한 핵심 4대 주제인 ▲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품질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 등을 별도로 구성해 상세히 다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에 대해 공시했다.

올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등 국내·외 최신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반영해 ‘재무적 영향 분석’을 실시한 점이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INFD)의 권고안을 반영해 기후변화와 자연자본 이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와 재무적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공시 신뢰도를 확보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21일 “ESG경영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C제일은행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 강화

초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솔루션
신규고객 최대 1600만원 상당 혜택

SC제일은행이 초고액 자산가 고객을 겨냥한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를 강화한다. SC제일은행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한 자산관리 솔루션과 함께 각종 문화·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추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에게 특별 혜택을 준다.

SC제일은행은 예치자산 기준 10억원 이상의 프라이빗 बैं킹(PB)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고객에는 상품 가입 규모에 따라 최대 16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초대한 기존 고객에는 최대 5명까지 초대 고객 1인당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SC그룹의 글로벌 자산관리 역량과 차별화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고객 자산가 고객을 겨냥해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프라이빗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비금융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고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 /SC제일은행

객은 추천인과 피추천인이 함께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고 직원을 통해 동의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추천 프로그램의 상세한 세부 조건 및 참여 신청은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PB 센터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할 수 있다.

김지강 SC제일은행 고객자산가사업(Affluent·아플루언트)부문 부행장은 “SC제일은행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의 독보적인 가치를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전문적인 자산관리 솔루션과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 혜택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 성과급·초과이윤 몸살… 준감위 “국민 앞에 겸손해야”

노노 갈등·위법성 공방으로 먼저 준감위, 하반기 입장 구체화 방침 이찬희 위원장 “현안 의견 모을 것”

반도체 초호황이 낳은 성과급·초과이윤 배분 논쟁이 노노 갈등과 위법성 공방으로 번지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국민 앞의 겸손’을 주문하고 나섰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에서 시작된 성과 배분 논쟁은 정부의 기준 마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에 노사 문제도 있었고 주식시장도 급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선언한 헌법 제119조의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을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위해 국가가 경제를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고사성어 ‘거고사추지만계일(居高思墜 持滿戒溢)’을 인용했

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찼을 때 넘칠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성격의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에 이어 삼성까지 이익 연동 배분에 합류하면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임직원과 어디까지 나눌지가 재계 전체의 쟁점으로 커졌다. 합의 뒤에도 DS 부문과 완제품(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이 이어졌고 소액주주 단체들은 이익 연동 성과급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성과급과 초과이윤 문제를 준감위가 공식 안건으로 다루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아직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준감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사안이 본격화되면 살펴볼 수 있고, 이사회에 가기 전 검

토 의견이 오면 준감위가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어떤 계기에서 계획이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고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가 이뤄지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준감위가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증권가에서 나온 삼성전자 미국 주식 예약증서(ADR) 상장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회사가 검토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달 정례회의의 연장선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익 연동 성과급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삼성 내부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성과 배분 논쟁에는 이날 청와대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투자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다.

한편 준감위는 하반기 노사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워낙 이슈가 많아 정신없이 지나갔다”며 “하반기에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진 노사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준감위 차원의 의견을 모으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LG,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싹쓸이

AI 기반 효율개선 등 기술혁신 성과

삼성전자 8년 연속 최고상 수상
LG전자 식기세척기 등 12개 본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효율 가전 기술력을 앞세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나란히 두각을 나타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한 ‘제2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8년 연속 최고상인 에너지대상상을 수상하는 등 총 10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LG전자도 대상 3개를 포함해 총 12개 본상을 받으며 10년 연속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에어컨으로 최고상인 에너지대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 제품은 AI와 모션 레이다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활동량과 부재 여부를 감지하고 냉방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냉방을 약하게 유지하거나 전원을 꺼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42% 절감할 수 있으며, 습도 센서를 활용한 ‘쾌적제습’ 기능으로 기존 제습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도 최대



LG전자가 대상 3개를 비롯해 총 12관왕을 차지하며 10년 연속으로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LG전자

30% 줄였다.

에너지기술상은 ‘인피니트라인 후드일체형 인덕션’이 수상했다. 최대 7400W의 화력을 구현하면서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갖췄으며, 공기질 센서를 활용해 조리 중 발생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감지하고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LG전자도 AI 기반 에너지 효율 기술을 앞세워 대상 3개를 포함한 총 12개 본상을 수상했다. ‘LG 휘센 AI 오브제컬렉션 티워I’ 에어컨은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하는 AI 콜드프리 기능과 고효율 실내기·실외기 기술을 적용해 동급 제품 대비 냉방효율을 최대 13% 높이고 전기요

금은 최대 11.5%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LG 이페이퍼(E-paper) 디스플레이도 대상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화면을 유지할 때 별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 없는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로,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소비전력을 99% 이상 줄였다. 출시를 앞둔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 역시 대상에 선정됐다. 건조 성능을 높이면서도 전기 사용량은 기존보다 약 10%, 물 사용량은 약 18% 줄였으며 AI 자동세척 기능을 통해 식기 오염도에 맞춰 물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현정 기자

중형트럭시장, TCO 중심 질적재편

(총소유비용)

단순 성능보다 실질적 수익연결 중시 하이센, 낮은 유지비·경량 설계 각광

국내 중형트럭 시장에서 타타대우모빌리티의 중형트럭 ‘하이센’이 뛰어난 경제성을 갖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트럭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전체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축 사양’, ‘고중량 모델’, ‘고마력 엔진’ 등 실질적인 화물 운송 능력과 직결되는 ‘수익성 위주’로 완벽하게 질적 재편되고 있다.

카이즈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중형카고(4.5톤~8톤) 시장은 2014년 1만555대에서 2023년 513대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준대형 카고(8톤~16톤) 시장은 743대에서 7397대로 약 10배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총소유비용(TCO·Total Cost of Ownership) 중심의 시장 재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량 구매 가격뿐 아니라 연료비와 정비비, 차량가동률, 잔존가치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변화속에서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트럭 하이센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이센은 캡 폭을 최대 115mm 줄이고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트럭 하이센

캡 높이를 최대 325mm 낮추며 기존 중형트럭과 차이점을 뒀다. 또 새롭게 개발한 220mm 프레임을 적용했고, 최대 15톤급 축설계 허용하중을 갖추고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하이센은 기존 중형급 트럭보다 약 15~20% 낮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였으며, SCROnly 후처리 시스템과 인-실린더 방식 DPF 재생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 개선과 유지보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연료필터 교환 주기도 10만km로 기존 중형급 트럭 대비 약 2.5배를 늘리고 밸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해 정비 비용과 차량 비가동 시간을 줄이는 데도 주력했다. 차량 경량화 역시 운송 효율을 높이는 요소다. 하이센은 최소 공차중량을 4470kg까지 낮춰 동급 대비 적재 여유를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에어로, 5억弗 규모 해외공모 채권 발행

수요예측 약 33억달러 주문 들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우주항공 기업 최초로 5억달러 규모의 해외 공모채권을 발행했다. 수요예측에는 발행액의 약 7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과 아시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달러화 채권 수요예측을 진행해 5억달러(약 741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만기 3년의 고정금리부채권(FXD)이다.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 미

국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 83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최저제시금리(IPG) 115bp보다 32bp 낮아졌다. 주관사로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크레디아그리콜증권, UBS가 참여했다.

수요예측에는 발행액의 약 7배인 33억달러의 주문이 들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국내 방산·우주항공 기업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했다.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한국타이어, 로봇용 타이어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

무인소방로봇 ‘아이플렉스’ 공급

한국타이어가 비공기압 타이어 기술력을 앞세워 재난 대응 특수 모빌리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개발한 무인소방로봇에 차세대 비공기압 타이어 ‘아이플렉스(i-Flex)’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무인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국내 최초 다목적 무인 차량 ‘HR-세르파’를

기반으로 65mm 고성능 방수포, 시야개선 카메라, 자체 분무 장치, 원격 조작 기능 등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타이어는 현대로템과 약 5년간 공동 개발을 거쳐 고위험 화재 현장에 최적화된 차세대 비공기압 타이어를 선보였다. 무인소방로봇의 고하중 구조와 험로 주행 환경을 고려해 하중 지지에 용이하고, 압축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이중 아치’ 구조를 적용했다. 또 오프로드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불규칙한 충격을

일차적으로 흡수하는 ‘외측 아치 구조’와 차량 구동부 측에 전달되는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내측 아치 구조’, 내·외측 아치를 연결하는 ‘힌지 구조’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뒷받침한다.

한국타이어는 “미래형 타이어 기술을 무인 특수차량, 자율주행, 로봇틱 모빌리티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소 2題

경기전망 ‘악화’ 줄고 ‘호전’ 늘었다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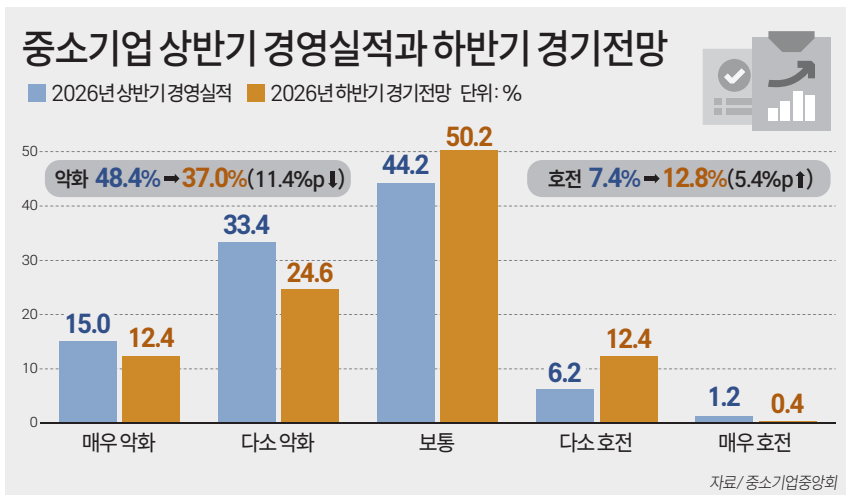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500개사 설문조사 부정적 37%·긍정적 12.8% 응답
매출·영업익·자금사정 개선 기대
원자재값·내수부진 부담 이어져
하반기 최우선 전략 ‘위험 관리’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들의 경기는 어떨까.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보다 ‘악화’는 다소 줄고, ‘호전’은 소폭 늘었다. 상반기에 비해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내놓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6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은 ‘악화’가 37%로상반기 대비 11.4%포인트(p) 줄었다. 반면 ‘호전’ (12.8%)은 5.4%p 증가했다. 다만 절반인 50.2%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인 모습이다.

제조업의 ‘호전’ 비율은 14.4%로 비제조업(11.2%) 대비 3.2%p 높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호전 전망 비율(16.5%)도 전체 평균(12.8%) 대비 3.7%p 높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상반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항목에서 모두 ‘호전’ 응답이 증가하며 경기 개선을 전망했다. ▲공정가동률의 경우 호전 응답은 다소 줄었으나 ‘보통’ 응답이 대폭 증가했다.

수준 판단 항목에선 ‘보통’ 응답이 80% 내외로 대다수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적정 수준이며, 상·하반기간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인력 수급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경영 애로요인으로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높았다. 환율변동성 증가, 물류비 상승, 지정학적 불안이 뒤를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을 제외한 주요 애로 요인은 상반기 대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절실히 요구하는 세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대외 변동성 관리를 아우르는 세심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출산·육아에 ‘경영 공백’
여성기업인 부담 더 커져

여성경제연구소, 645개사 조사
응답자 88.5% 일·생활 균형 부담
가족돌봄 편중·육아 책임 주요 원인

여성기업인 10명중 9명은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일과 생활 균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인을 위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가 여성기업 64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일·생활균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가족돌봄 등으로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보통’이란 답변은 7.9%, ‘부담이 없다’는 3.6%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에 대한 부담은 1인 여성기업이 91.7%, 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이 91.4%로 각각 집계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부담이 큰 실정이다.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복수응답)는 ‘가족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65.3%)와 ‘자녀 육아 부담’ (54.6%)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여성기업인은 임신·출산 시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 운영 차질’ (24.3%)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경영 공백 대응 단기 보조인력 지원’ (23.6%) 등을 꼽았다.

또 육아 등 자녀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아이돌봄·보육서비스 이용비 지원’ (19.3%), 부모 등 가족돌봄에선 ‘병원 진료·검사 동행 도우미 지원’ (26%)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인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97.1%에 달했다.

여경연은 “현재 일·생활균형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성기업인이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실상 지원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metro

현대백화점·이마트, 유통상생 공로 정부 표창

중기중앙회, 제6회 유통상생대회 개최
중기부, 플랫폼 협력 전 산업 확대
11번가·롯데온도 우수기업 선정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상생에 힘쓴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11번가는 국회 정무위원장 표창, 롯데온은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6회 유통상생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6화째를 맞은 유통상생대회는 유통 분야 대·중소기업의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모범 기업을 포상하는 행사다. 이날 유통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을 동력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4개 기업을 포상했다.

현대백화점은 총 3227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유통상생대회’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해 지난해에만 23억원 가량의 성과를 협력사와 나눴다.

이마트는 동반성장펀드 1246억원 조성에 힘쓰고 연간 300곳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상품 공동 개발, 해외 배송 등 수출을 지원하는 등 판로개척에 힘썼다.

11번가는 ‘신규셀러 판매 UP’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중·소상공인에게 1년간 낮은 고정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상생에 나섰다. 롯데온은 47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조성,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빠른 정산·수수료

인하 등 총 43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상생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범위 온라인 플랫폼 등 전 산업 확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간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상생협력 확산 등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AI 윤리헌장 선포… 준수기관 인증

편향·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예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윤리헌장을 수립·선포하고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

21일 중진공에 따르면 기관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확대됨에 따라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개인정보 침해, 보안 위험, 투명성 저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AI 윤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먼저 중진공은 지난 7월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임직원의 실천 기준을 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윤리헌장’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사람 중심의 AI 활용 ▲공정성 확보 및 차별 방지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설명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AI 활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의 원칙을 담았다. /김승호 기자



지난 20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열린 SK인텔릭스-KAIST AI컴퓨팅학과간 MOU 체결식에서 (왼쪽 5번째부터) KAIST 이의진 AI컴퓨팅학과장, SK인텔릭스 김형진 나무엑스사업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인텔릭스

SK인텔릭스, KAIST와 AI 정신건강 협력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 API 연구 활용

SK인텔릭스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웰니스 로보틱스 기반 AI 정신건강-웰니스 서비스 소프트웨어(SW) 개발·고도화에 나선다. 21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니스 로보틱스 기반 AI 정신건강-웰니스 서비스 SW 공동 연구개발 ▲제품 및 API를 활용한 공동 연구·실증 환경 구축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연구 데이터셋 수집 및 활

용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웰니스 관리 솔루션 실증 ▲정부 실증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 과제 공동 수행 ▲초청 강연, 해커톤, 인턴십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SK인텔릭스는 세계 최초의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의 개발·자용 API를 연구 플랫폼으로 제공해 연구진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AI 알고리즘과 웰니스 서비스를 검증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야생동물 불법거래 차단 동참

국내 항공사 첫 英 버킹엄궁 선언 서명
글로벌 운송 TF 참여해 의심 화물 거부

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운송태스크포스(TF)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버킹엄궁 선언은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 거래 및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적인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에 신고,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와일드라이프 TF에 참여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들을 이행한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참여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운송 거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되던 뉴질랜드 토종 회귀종 보석 도마뱀의 복귀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양성운 기자 ysw@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 CCTV 200만대 돌파… 다층 보안체계로 AI해킹 차단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거의 보급
공공 CCTV 보안 인증 의무화
인터넷망, 내부 행정망 완전 분리
영상 데이터, 국정원 검증 암호화
접근 기록 보관해 정기 점검 실시도

공공기관용 CCTV가 전국 주요 기관에 보급되면서 이들 CCTV의 보안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공공 CCTV의 안전한 운영이 새로운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2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 기관에 도입한 CCTV는 200만대를 넘어섰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총 205만4387개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25명당 1대꼴로 작동 중인 셈이다.

현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 등 전국 주요 공공 기관에 CCTV 보급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다. 실제로 2008년 공공 CCTV 설치 증감률은 전년 대비 57.3%인 반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9%에 그쳤다.



공공기관용 CCTV가 전국 주요 기관에 보급된 가운데 보안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명훈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부장은 “지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7~8년 전에 CCTV 도입을 시작해 현재는 220개 자치구에 거의 전부 설치된 상태”라며 “최근엔 대단지 아파트나 유치원, 산업 현장 등으

로 의무화되는 특수한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 CCTV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특히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보안 인식도 커

지는 추세다. CCTV가 국가 주요 시설에서 작동하는 만큼 해킹이 국민 안전과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직까지 국내 공공 CCTV에서 대규모 해킹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다만 과거 다수의 공공 기관 CCTV에 보안 취약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주요시설과 군부대, 경찰청, 공기업 등에 중국산 CCTV 약 3만 대가 설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은 앞서 다후아 등 중국 업체에서 만든 영상 감시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공 기관 내 사용을 제한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해킹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공공 CCTV 보안 인증을 의무화해왔다. 현재 공공기관용 CCTV 제조 기업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 성능 품질 인증 등이 있어야 조달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별도로 제정한 보안 지침

에 따라 인터넷망과 내부 행정망을 완전히 분리하고 독립적인 폐쇄망을 운영한다. 영상 데이터는 국정원이 검증하는 암호모듈(KCMVP)로 암호화하고, 통합관제 센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접근 기록(로그)을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 정기 점검도 실시한다.

이 같은 엄격한 관리에도 AI를 악용한 백도어 해킹 등으로 보안 기술이 뚫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은닉형 백도어를 빠르게 생성하면서 기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준호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박사(교수)는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에서 디지털만으로 구성된 보안 방식은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에는 디지털 보안과 아날로그 방식을 결합한 다층 보안 체계로 AI 해킹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에릭슨과 보이스 AI 솔루션 개발

‘제로 UI’… 음성만으로 의도 전달
기술검토부터 글로벌 상용화까지
‘익시오’ 경험과 네트워크 기술 결합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차세대 통신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인공지능을 통신 네트워크에 내재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과 보이스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보이스 AI’는 사람과 인공지능(AI)을 연결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다. 특정 단말이나 운영체제(OS)에 얽매이지 않는 게 특징이다. 회사 측은 AI 기술을 통해 음성만으로 상대방에게 의도를 전달하는 ‘제로 UI’ 시대를 강조했다.

특히 기술 검토부터 글로벌 상용화까지 중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스템 통합을 진행하고 보이스 AI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또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 및 구현하고 글로벌 클라우드에 보이스 AI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검증도 협력한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오른쪽)과 보르에 에크홀름 에릭슨 사장이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에릭슨 본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앞으로 고객은 필요한 AI 기능을 고품질 음성망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가 불필요한 전화를 대신 처리하고, 중요한 통화만 연결받거나 통화 중에는 AI 비서가 필요한 업무

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클래스 등 디바이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같은 보이스 AI 솔루션 구현을 위해 통신망 구성 요소에 네트워크 기반의 AI를 결합하고 연내 기술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로 네트워크가 운영 상황을 스스로 인지해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는 등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를 위한 협력도 확대한다. 나아가 장에 대응과 서비스 품질 관리도 추진한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LG유플러스가 익시오를 통해 축적한 보이스 AI 서비스 경험과 에릭슨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 역량을 결합해, 보다 지능적이고 편리한 통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 AI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겠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보이스 AI의 글로벌 사업을 구체화하고,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술이 LG유플러스의 중장기 성장과 고객 경험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넷마블, 도쿄게임쇼서 3종 신작 시연한다

‘상그릴라’ ‘나혼렘’ ‘떨 인 블루’ 선택

넷마블이 오는 9월 일본 치바 마쿠하리 메ッセ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서 ‘상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떨 인 블루’ 총 3종을 출품한다고 21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게임쇼 특설 사이트에서 출품작 소개글과 부스 프로그램, 무대 행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상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은 일본에서 누적 조회수 10억회를 기록하고 코믹스 누적 발행 부수 1700만부를 돌파한 ‘상그릴라 프론티어’를 기반으로 한 대그고체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이다. 간단한 한 손 터치로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하고 세계관과 캐릭터, 몬스터 토벌 등 원작 내용을 즐길 수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로그라이트 액션 RPG다. 게임 내에서 원작 애니메이션 이후



넷마블이 오는 9월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출품할 게임 3종.

/넷마블

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처음 공개된다.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무기와 버프를 조합해 다양한 빌드업을 완성할 수 있다.

‘떨 인 블루’는 저마사의 상처를 지닌 소녀들과 마음을 이어가는 서사 중심의 서브컬처 수집형 RPG다. 히어로이자 인플루언서로 활약하는 기사단을 육성하고 2D 애니메이션 감성의 특색 있는 컷신을 감상할 수 있다.

넷마블은 출품작별 시연과 무대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메타빌드 기보 전자보증 플랫폼 1단계 구축 사업 수주

메타빌드는 기술보증기금의 전자 보증 플랫폼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메타빌드는 기술보증기금이 아용 중인 타사의 소프트웨어를 자사 연계 미들웨어 제품인 ‘MESIM ESB’로 전환한다. 금융 기관 간 전자상거래, 기업간거래(B2B) 플랫폼 등 외부와 전자 보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메타빌드는 주안 사업자로 나서 노후화된 연계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교체하고, ESB를 기반으로 전자보증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인터넷 전문 은행 등 신규 금융기관의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 /조민선 기자

SKT,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박차

‘스케치 워드 AI’ 참가기업 모집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스케치 워드 AI’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스케치 워드 AI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하고 협력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스케치 워드 AI는 SK텔레콤과 스타트업이 AI를 통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다(SKTCH, SKT+Tech)는 의미로, AI 인프라 및 사업 역량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다.

회사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스타트업에 전문가 멘토링, 사업 고도화, 경영 인프라 지원, 벤처 캐피탈 및 유관 기관 대상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향후 협업 가능성과 스타트업의 AI 경

쟁력 등을 고려해 15개 회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선발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자사가 개발한 ‘AI 심사역’도 참여한다. 심사 속도 향상과 평가 일관성 강화가 기대된다. 향후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전 심사 영역은 AI에 맡기고, 사람은 정밀 검토에 집중하는 등 효율적으로 심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ESG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스케치 포 굿’은 지난 4월 진행했다. 이를 통해 ESG 관련 기업의 AI 기술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고려청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

웹젠, 日 서브컬처 행사에 ‘테르비스’ 출품

‘코믹마켓’에 5회 연속 참가

웹젠은 개발 중인 서브컬처 RPG ‘테르비스’ (사진)를 오는 8월 열리는 일본 최대 서브컬처 행사 ‘코믹마켓(C108)’에 출품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미케’로도 불리는 코믹마켓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열리는 대규모 서브컬처 행사로,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 팬들이 찾는 대표 행사다.

테르비스는 2024년부터 코믹마켓에 연속 참가해왔으며, 이번 행사로 5회 연속출품을 이어간다. 웹젠은 최근 공식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게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기간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코믹마켓 부스는 여름 해변의 꽃놀이를 콘셉트로 꾸며진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캐릭터 굿즈를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도 마련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유명 코스플레이어 11명이 참여하는 코스프레 행사도 진행한다. 기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대표 캐릭터는 물론 새롭게 공개되는 수영복 코스튬 캐릭터도 코스프레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웹젠은 코믹마켓 참가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서브컬처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출시 전 게임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조정장 vs 2차 랠리... 엇갈린 반도체 전망에 개미 섹법 복잡

삼전·닉스 등 반도체주 변동성 커져
AI 투자 증가세 둔화 등 보수적 전망
“일시적인 재가격화 과정” 평가도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하자 “지금 빠져 나오지 않으면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도 극심하다. 반도체주를 비롯한 주요 기업 주식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매수·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반복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6.15% 상승한 25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월들어 하루 평균 변동률은 6%가량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조정을 “악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가격과 수급이 균형을 다시 찾는 재가격화(Repricing)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물러코스터를 탔다. SK하이닉스는 이날 4.08% (183만6000원) 반등했다. SK하이닉스의 이달 하루 평균 변동성은 6.95%였다.

◆반도체주 불안과 기대 사이

해외투자은행(IB)과 증권사들의 반도체 전망은 제각각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률 둔화와 재고 정상



Chat 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화, 실적 추정치 상향 사이클 마무리 가능성은 이유로 메모리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AI 투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경우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일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 8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85만원으로 유지했다.

이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매도에 가까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eSSD)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지만 이를 이끌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적인 AI 인프라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도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43만원에서 3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

다. 박유악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HBM4와 eSSD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경쟁 심화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두언 연구원은 “AI 인프라 투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며 “2027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둔화와 업황 하강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역시 삼성전자 목표주가 60만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420만원을 유지하며 “2027년은 70년 반도체 역사상 가장 공급이 타이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용 메모리 생산능력이 HBM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메모리 공급 부족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메타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증설 계획이 이어질 경우 메모리 수요도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동원 연구원은 “이달 말 메타 실적 발표에서 2027년 AI 투자 계획이 제시된다면 AI 투자 둔화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나기 피할 곳 찾아라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과열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인공지능(AI)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3배에서 1.4배 정도가 적절한 ‘목바텀’(하단)이며 이는 코스피 지수로 치환하면 6000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당분간 철저하게 이익 방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을 다변화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극심한 변동성을 활용해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진 메모리 반도체와 기술주 가운데 투자 확신이 높은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 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지금까지는 AI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AI 관련 종목이 압박을 받는 국면에서는 헬스케어와 금융 등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이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하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이찬진 “홈플러스 위법, 투명·신속 제재”

(금감원장)

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직원 피해 최소화 위해 관계기관 협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부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한 제재절차를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계 불안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국회 정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결로 보인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전단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682건, 총 5조1300억원어치가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다.

/하정운 기자

증시 활황에 상반기 증권결제 4701조

예탁원, 전년대비 41.3% 증가

국내 증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는 증권결제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증권결제 대금은 470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41% 넘게 증가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은 총 470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637조1000억원)보다 29.3%, 지난해 상반기(3326조4000억원) 대비 41.3%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주식결제대금은 993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361조6000억원) 대비 174.8%, 전년 동기(239조7000억원) 대비 314.5% 급증했다. 더불어 채권결제대금은 3707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3.2%, 전년 동기보다 20.1% 늘어났다.

주식시장 거래가 크게 늘면서 장내 결

제 규모도 급증했다. 상반기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436조3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74.7%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1경2095조2000억원으로 156.3% 늘었으며, 차감률은 96.4%로 직전 반기(96.6%) 대비 0.2%포인트(p) 감소했다.

기관투자자 결제 규모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 대금은 557조2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74.8%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6207조9000억원으로 154.5% 늘었다.

반면 채권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350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2.5% 감소했지만, 장외를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자 채권결제대금은 3357조원으로 16.8% 증가했다. 특히 단기사채 결제대금은 1077조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45.8%, 전년 동기보다 81.9%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화운용, 전주사무소 열고 국민연금 협력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한화자산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주요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20일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김중호 한화자산운용 대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한화자산운용과 국민연금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주사무소 개소는 국민연금과 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마련의 의미를 갖는다. 한화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왼쪽부터)김중호 한화자산운용 대표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열린 한화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

아울러 전북 지역 금융생태계의 성장과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한다.

/신하은 기자

토스증권, AI 어닝콜 이용자 60만명 돌파

서비스 범위 확대 3개월 만의 성과

토스증권은 국내기업에 대한 인공지능(AI) 어닝콜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 수가 6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닝콜 서비스는 기업의 실적발표 설명회에 대한 투자자 지원 서비스다.

토스증권은 “지난 4월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어닝콜 서비스 범위를 해외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확대한 지 3개월 만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내 어닝콜로 서비스를 처음 접한 신규 이용자만 약 20만명에 달했다. 이어 가장 많은 이용자를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였으며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만 19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분기 실적발표 기간에는 70여개 국내 주요 기업의 어닝콜을 제공할 계획이다.

토스증권은 국내기업 어닝콜 서비스를 위해 실시간 한국어 음성 텍스트 변환 및 요약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적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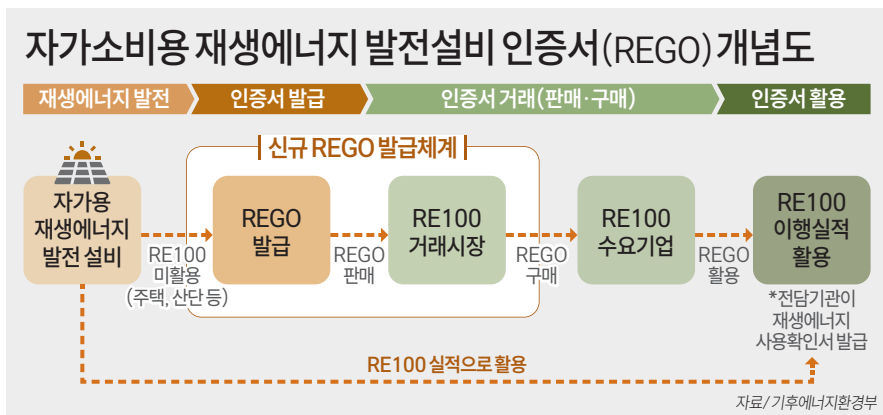
/하정운 기자

집집마다 ‘태양광 재테크’… 자가소비 인증서 대기업에 판다

내달 REGO 거래 시범사업 착수
1MWh당 1개 발급해 시장에 유통
전기료 절감 넘어 추가 수익 기대
경기 주택 370가구 첫 참여 대상
지자체가 정산 맡아 주민에 배분
2027년 본사업 전환 RE100 지원

앞으로 일반 가정의 주택이나 산업단지 공장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 등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단순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자산화해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테크’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 아끼고, 인증서 팔아 수익 내고… ‘일석이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란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전기를 직접 쓰고 요금을 아끼는 데만 쓰였을 뿐, 남거나 자체 소비한 전력의 재생에너지 가치를 타인에게 판매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 그러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발전량 1MWh당 1REGO를 발급받아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에게 판매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국내 RE100 참여기업이 2021년 83개에

서 2025년 586개로 급증하며 재생에너지 수요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기업들에도 매력적인 신규 이행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SREC), 일본(J-Credit) 등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글로벌 RE100 주관기관인 CDP로부터 국내 REGO를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마쳤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370곳 첫 시범 타킷… 지자체가 수익 배분 중개

본격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다. 기후부는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 설치 가구 중 370개소를 대상으로 REGO 발급·거래를 우선 지원한다. 개인이 직접 세금 처리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기도 등 지자체가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수익을 정산한 후 지역화폐 등으로 주민에게 배분하는 ‘중개형 모델’이 실험대에 오른다.

기후부는 오는 8월~11월까지 약 4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보완한 뒤, 오는 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공모절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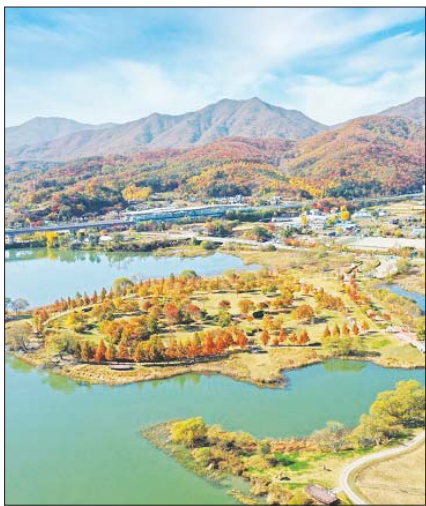
상수원 규제 풀고 ‘햇빛소득’ 확대… 주민 발전수익 공유

4대 수계법 개정안 시행
육상태양광 부지 제한 해소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환경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기회가 넓어진다.

규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소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남양주시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형호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복지증진 중심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임지 규제도 크게 풀린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고 수면 위 설치에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육상태양광의 부지 제한이 사실상 해소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라면 수상태양광 설비 설치도 허용된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누진 3단계 진입 전 실시간 알림

여름철 360kWh 도달 시 안내
한전ON·카카오톡으로 즉시 발송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최고 요금제 구간인 ‘누진 3단계’ 진입 전 미리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기사용량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단가가 크게 뛰는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여름철 450kWh)의 80% 수준인 360kWh에 도달했을 때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알람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여름 이외 계절 기준으로는 400kWh의 80%인 320kWh 도달 시 알람이 발송된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의 푸시 메시지로 전송되며, 앱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달된다. 특히 알람 메시지를 클릭하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현재 실시간 사용량뿐만 아니라 현재 누진 단계, 그리고 이번 달 예상 요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우선 ‘한전ON’ 가입자 약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올 12월에는 원격검침인프라(AMI)가 구축된 주택용 전 고객(약 1100만 가구)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여름철 전력 피크를 완화해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팬티형 생리대 흡수력·착용감 제각각

전 제품 안전성 적합 가격 최대 2배

자는 동안 사용하기 편리해 최근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받는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가 제품별로 흡수성과 착용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2배까지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소비자 사용 경험에 많은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7개 브랜드)을 대상으로 흡수성능, 소비자 실사용 평가에 따른 착용감, 기본 품질, 안전성, 개당 가격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에 흡수된 생리혈이 다시 피부에 묻어나오는 정도인 ‘역류량’은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무표백100% 유기농순면커버 입는 오버나이트)’이 1·2차 시험 모두에서 가장 적어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생리혈을 완전히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흡수시간’은 흡수량이 5mL 일 때 내추럴코리아의 ‘내추럴코튼(시그니처오

가닉 입는 오버나이트)’이 3.6초로 가장 빨랐던 반면, 라엘코리아의 ‘라엘(내추럴순면입는오버나이트)’은 1·2차 시험 모두에서 20초 이상 걸려 상대적으로 흡수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40대 여성 소비자 110명이 참여한 실사용 평가에서는 더퍼스트터치의 ‘리버티(센시티브 입는 오버나이트)’와 ‘라엘’ 제품이 치수 맞음새 항목에서 각각 3.8점, 3.7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촉감과 맞음새를 포함한 전체적인 착용감 만족도는 ‘라엘’ 제품이 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위생 및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다. 질량, 강도 등 기본 품질 및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발암성과 생식독성 등 위해도가 높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종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들이 확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

AI·AX 수산교육 본격화

현장실습·취업 연계 강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한국농수산대 및 4개 고교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AI·AX(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한국농수산대, 완도수산고,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신안해양고 학교, 여수해양고등학교와 함께 이과·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공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AI·AX 기반 수산교육 전환을 위한 학습 모델 공동 연구 △현장실습·산학연계 및 진학·취업 연계 ▲스마트수산업 관련 연수·캠프·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정책 및 산업계와 연계한 공동 사업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폴리텍대학

무전원 배터리 화재진압

광주캠퍼스 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주말 서울교대에서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WICO)을 개최했다. 이번 WICO에는 약 20개국 1000여명의 학생, 기업인, 발명가가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신기술 등을 선보였다. 올해 대회는 폴리텍대와 한국대학지식재산협회, 세계지식재산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상’은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발명품 ‘열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무전원 배터리 화재 진압 시스템’이 받았다. 광주캠퍼스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 전원이 차단되면 기존 소화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원 없이 고열에 반응하는 형상기억합금이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작동해 배터리를 소화수에 침수시키는 완전 무전원 방식의 자가 작동형 시스템을 고안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충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전… 공공기관 이전 추진

국회서 에너지 전환 당위성 강조
2038년까지 석탄화력 21기 폐쇄
부가가치 감소 등에 지역경제 타격
보령·태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세종시 출범 손실에 보상 필요

충남도가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해 온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활동을 공식 화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도 함께 추진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원 요청에 나섰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건의했다.

충남도가 통합본사 유치에 적극 나서 는 것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 가까이 충남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 발전 5개사 가운데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각각 보령과 태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화력발전소 52기 중 28기(53.8%)가 충남에서 가동



박수현 충남도지사(오른쪽)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이소영 여당 간사(왼쪽)를 만나 충남 현안을 건의했다.

중이다. 발전용량도 전국의 36.7%인 1만9096MW에 달한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부담 역시 충남이 가장 크게 떠안고 있다. 이미 보령화력 1·2호기와 태안화력 1호기가 폐지됐으며, 오는 2038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기의 화력발전소가 추가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충남에서 발전소 14기가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 감소액은 19조2080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7조8300억원, 취업 감소는 7577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추가

폐지까지 반영되면 지역경제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인구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보령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 이후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달 말 기준 9만1260명까지 감소했다. 태안군도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6개월 만에 인구가 400명 이상 줄었다.

도는 보령과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이 40여년간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대기오염과 송전선로 설치 등 환경·재산상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지역의 희생을 고려할 때 통합본사는 충남

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통합본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보상형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구 13만 7000명과 면적 437.6㎢가 감소했으며, 충남연구원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25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되면서 충남의 지역경제가 어느 지역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설치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여야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부처 건의,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7대 본부장에 김상우 취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의 제 7대 본부장으로 김상우 본부장이 취임했다. 이번 인사는 한수원이 지난 16일 단행한 본부장급 보직 이동의 하나로, 새울본부를 포함해 ▲한강희 기획본부장 ▲김성면 발전본부장 ▲홍승오 건설사업본부장 ▲정병수 재생수력사업본부장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 ▲김현주 한빛원자력본부장 ▲이용희 한울원자력본부장 등 8개 보직이 교체됐다. 김상우 본부장은 1995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약 30년간 원전 현장과 본사를 두루 거쳤다.



/부산=이도식 기자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전달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무더위 속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여름 이불 세트 전달에 나섰다.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등 관내 5개 구의 폭염 취약 저소득 가정 각 30세대, 총 150세대에 이불 세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의 기부금 공모사업 하나로 마련됐다. 한국마사회는 랫츠런 재단을 통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사회복지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0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해 왔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해남공통박물관

여름방학 맞아 공룡 체험행사

해남공통박물관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일요일에는 버블 풍선쇼 등 다채로운 특별 공연이 열리며, 매주 토요일에는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운영한다. 주말동안 발굴체험장에서 청렴 공룡 화석을 찾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청렴 발굴 대작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해남(전남)=이도호 기자 eogh7505@

완도군

명사십리서 해양레저 무료 체험

완도군은 8월 2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2026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9년 연속 친환경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획득한 명사십리를 알리고, 피서객들에게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래프팅, 카약, 서프보드, 당기 요트 등 무동력 레저와 세일링·크루즈 요트 체험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단 요트 체험은 목요일요일에만 운영되며 서프보드는 경력자만 이용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30분~17시이며, 월요일은 휴장한다.

/완도(전남)=이도호 기자

포항, 글로벌 AI 산업 거점 도약 시동

2조 들여 2027년 준공 목표 철강·이차전지와 연계 기대

포항시가 광명일반산업단지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시작하며 AI 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는 20일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김철수 포항시의회의장, 시·도의원, 투자사인 네오AI클라우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지역 대학·연구기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은 총 2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자로 1단계 40MW급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후 약 260MW 규모의 2단계 확장도 계획돼 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패스트트랙 TF를 운영하며 전력계통영향평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입주 승인, 건축허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 비기술평가와 기존 건축물 철거,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본공사에 들어갔다.

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산업과 포스텍, 한동대, RIST, KIRO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포항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과 기술,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AI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 전환펀드, 디알엑시온 첫 투자

미래차 경량화 부품시장 진출 지원

부산시가 조성한 '부산미래산업 전환펀드'의 지역 1호 투자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디알엑시온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전환펀드로는 전국 최초 사례다. 디알엑시온은 1979년 대림기업으로 창립한 부산 향토기업이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알루미늄 정밀 주조와 가공 분야에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정부의 월드클래스 300, 명문뿌리기업 인증을 받았고, 올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에 선정됐다.

이번 투자는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디알엑시온은 기존 엔진 부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경량화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는 지난해 2월 조성 계획이 공식화된 뒤 같은 해 6월 551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결성됐다. 5대 시중은행이 500억원, 부산시가 41억원, 한국산업은행이 10억원을 출자했으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모펀드를 운용한다.

자펀드 운용사로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아주IB투자 ▲노앤파트너스 3곳이 선정돼 총 8000억원 이상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 국가정보통신망 전국 첫 이원화

창원·진주 이중 거점 가동

경상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정보통신망의 백본전송망과 도 행정통신망을 모두 지역 이원화한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해 기존에 창원 본청과 대전센터에 있는 단일 거점으로 운영하던 구조를, 진주 서부청사를 서울센터와 신규 연결해 이중 거점 분산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본청은 대전센터, 서부청사는 서울센터를 각각 거점으로 삼아 운영하게 된다. 국가정보통신망은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백본전송망'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통신망'으로 나뉜다. 백본전송망은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



경남도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과 도 행정통신망의 지역 이원화 구축을 완료했다. /경남도

던 국가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핵심 전송망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한다. 경남도 행정통신망은 도청을 중심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을 잇는 전용 통신망이다. 이번 사업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9월 국정지원 대전센터 화재였다.

/경남=손병호 기자

김해, 기술혁신 선도기업 8곳 선정

5대 전략산업 R&D 역량 강화

경남 김해시가 20일 '2026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8개사를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해시 5대 전략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24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3년째다.

이사업은 ▲의생명·의료기기 ▲디지털 물류 ▲스마트 센서 ▲미래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5대 전략 산업과 액화수소, 민군 MRO, ICT 융합 등 미래 기반 산업 관련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발표 평가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기술력과 사

업화 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사를 확정했다.

공모에는 50개사가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년 첫째 10개사, 지난해 8개사에 이어 올해까지 누적 26개사가 선정됐으며 선정 기업은 3년간 성장 지원을 받는다.

선정 기업은 매출액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도전트랙'과 '성장트랙'으로 나뉜다.

도전트랙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이 상용화 이전 단계 R&D 과제, 성장트랙은 20억원 이상 기업이 시제품 제작과 표준화 등 후속 과제를 수행한다. 지방세 감면, 투자 네트워크 등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오하요 브뤼레 밀크’ 정식 출시… “韓, 핵심 시장 중 하나”

오하요유업 미디어 행사

김대일 코리아세븐 대표 등 참석
韓 중심 해외매출 비중 확대 계획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

달콤하고 바삭한 캐러멜 층과 진한 우유 풍미로 일본 여행 필수 디저트로 꼽히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오하요 브뤼레 밀크’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

오하요유업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오하요 브뤼레 밀크’ 출시 미디어 행사를 열었다. 세븐일레븐과 오하요유업은 22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

1954년 설립된 오하요유업은 우유, 요거트, 푸딩,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일본 유제품 전문 기업이다. 일본 전체 젖소의 약 0.8%에 불과한 저지종 젖소의 원유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소재는 심플하고, 제조는 정성을 다해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오하요 브뤼레 밀크는 오하요유업의 대표 제품으로, 프랑스 디저트인 크림 브뤼레를 아이스크림으로 구현했다. 캐러멜라이징한 설량 코팅의 바삭한 식감과



‘오하요 브뤼레 밀크’ 소개 미디어 이벤트에서 오가와 케이스케 오하요유업 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저지 우유를 사용한 진한 우유 풍미가 특징이다.

이 제품은 2017년 출시 이후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22년 일본 아이스크림 그랑프리 프리미엄 부문 1위에 올랐다. 일본 주요 관광지 매장에는 정식 국내 출시 전부터 한글 POP가 설치될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오가와 케이스케 오하요유업 이사는 “오하요 브뤼레 밀크는 아이스크림을 굽는다는 기존의 틀을 깬 발상에서 탄생했다”면서 “초기 콘셉트 착안 후 장시간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캐러멜라이징을 구현하는 데 7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오하요 브뤼레 밀크의 모습. 캐러멜라이징 된 표면층의 바삭한 식감과 저지 우유 아이스크림의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김서현 기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번 국내 출시에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콜드체인으로 유지해야 하는 물류 여건을 충족하면서 이뤄졌다. 양사는 생산 물량과 제조 라인 전반을 협의해 앞서 인기를 끌었던 ‘저지우유푸딩’에 이은 후속 상품으로 이번 제품을 준비했다.

세븐일레븐은 2024년 오하요유업의 저지우유푸딩을 출시해 누적 판매량 270만 개를 기록했다. 해당 제품은 2024년 글로벌 소싱 상품 카테고리 매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저지우유푸딩의 인기로 힘입어 푸딩 카테고리 매출이 493% 증가했다.

오하요유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외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 시장을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후지모토 아츠시 오하요유업 이사회장은 “한국은 카페·디저트 문화가 발달돼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으로 오하요유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전과제이기도 하다”면서 “한국 시장에서 통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일 코리아세븐 대표가 참석해 신제품 출시 현장을 둘러봤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신세계, 오코그룹 합작법인 설립… 호텔 개발사업 추진

초기 투자금 5억달러 조성 예정
상업용 부동산 분야 등 협력 확대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부동산 개발회사 오코(OKO)그룹과 손잡고 호텔·리조트 브랜드 아만(Aman)과 자누(Janu)의 호스피탈리티 개발 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와 오코그룹은 최근 서울 조선펠리스 호텔에서 합작법인(JV) 설립 협약식을 열고 공동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오코그룹은 아만그룹 브랜드의 호텔·레지던스 개발을 주관해온 회사로, 오코그룹과 아만그룹 모두 블라디슬라프 도로닌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양사는 신세계의 복합개발 역량과 오코그룹의 럭셔리 호텔 개발 경험을 결합해 글로벌 호텔·레지던스 개발과 국내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왼쪽)과 블라디슬라프 도로닌 오코(OKO) 그룹 회장이 서울 조선펠리스 호텔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오코 그룹간 조인트벤처(JV) 설립 협약식을 했다.

/신세계

복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합작사에는 초기 투자금으로 5억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만과 자누 브랜드의 호텔 및 레지던스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국내외 복합 상업용 부동산 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아만은 1988년 설립된 럭셔리

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로, 태국 푸켓의 아만푸리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21개 지역에서 36개의 호텔·리조트·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만그룹은 2020년 새로운 호텔 브랜드 자누를 선보인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검증된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모델을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닌 회장은 “신세계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며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개발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롯데百貨, ‘넥스트랩’ 론칭… K-패션 해외진출 돕는다

무센트 등 5개 패션사 팝업 예정

롯데백화점이 글로벌 진출 플랫폼 ‘롯데백화점 넥스트랩’을 론칭하고 해외사업을 가속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넥스트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K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수출 통관, 인테리어, 마케팅 등 개별 브랜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 진출 과정을 롯데백화점이 가진 글로벌 인프라와 현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유망 K패션 브랜드의 정식 입점



롯데백화점 넥스트콘텐츠랩 첫 주자인 K-스트리트 웨어 ‘무센트’ 팝업 시안.

/롯데쇼핑

까지 연동하는 ‘팝업-인큐베이팅-입점’ 선순환 체계를 갖췄다. 해외 현지 유명 리테일러와 제휴해 팝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의 직영 점포를 활용해 정식 입점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롯데백화점 넥스트랩은 베트남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 첫 발을 뒀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롯데백화점이 베트남에 연 세번째 해외 점포로 23년 개점 후 올해는 누적 1조원 매출 달성이 유력한 국민 쇼핑몰로 도약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K패션 브랜드에 대한 현지 선호와 수요가 큰 만큼 하노이의 랜드마크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첫 번째 거점 삼아 중소 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넥스트랩의 첫 주자로는

‘무센트’가 나선다. 무센트는 최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팝업을 진행해 큰 화제를 모았고, 베트남은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팝업은 24일부터 다음달 8월 4일까지 진행 된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서는 무센트를 시작으로 ‘세터’, ‘노매뉴얼’ 등을 연말까지 총 5개 K패션사와 팝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에서 팝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롯데백화점 넥스트랩을 상설형 K패션 팝업 전문관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예정이다. 정규 매장 형태의 상설 팝업 전용관으로 연간 수십 여개 K패션 브랜드 팝업을 지속해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음료

저도 탄산주 브랜드 정비

롯데칠성음료가 저도 탄산주 제품인 ‘별빛청하 스파클링’과 ‘로제청하 스파클링’을 통합 브랜드 ‘별빛청하’로 재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별빛청하는 깔끔한 청하에 화이트 와인 과 탄산을 더한 스파클링 청주로 7%의 낮은 알코올 도수를 특징으로 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저도 탄산주 시장에서 ‘별빛청하’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이번 브랜드 재정비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품명 ‘별빛청하 스파클링’, ‘로제청하 스파클링’은 ‘별빛청하 오리지널’, ‘별빛청하 로제’로 변경된다.

제품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별빛청하 오리지널의 산뜻한 청포도향과 깔끔한 맛, 별빛청하 로제의 잘익은 적사과향과 달콤한 맛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CU-서울시

‘서울마이소울’ 간편식

CU가 21일부터 서울시와 협업한 ‘SEOUL MY SOUL 건강 간편식’ 5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간편식 협업은 건강한 서울 시민의 삶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정책과 편의점의 헬스플래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CU의 상품 전략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방식의 사회가치창출 모델이다.

‘SEOUL MY SOUL 건강 간편식’은 ‘일상에서 즐기는 건강한 한끼’를 콘셉트로,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저지방·저당·고단백 식단을 지향한다. 제품은 ▲서울마이소울 저당 고단백 닭가슴살 도시락 ▲저당 고단백 갈릭치킨김밥 ▲저당 비빔밥 비빔각김밥 ▲라이트 참치마요 비빔각김밥 ▲저당 고단백 오리엔탈 치킨 샌드위치 등이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결식아동 지원 등 사회 공헌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리복

‘인스타펌프 퓨리 94’ 출시

LF의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스타펌프 퓨리 94’(Instapump Fury 94)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과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인스타펌프 퓨리의 대표 아카이브 컬러웨이를 복각해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특히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컬러 3종을 함께 출시하며 하반기에는 국내 브랜드 발란사(BALANS A)와의 협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인스타펌프 퓨리는 리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스니커즈다. 1994년 디자인 스티븐 스미스가 디자인한 이 모델로 끈 대신 공기를 주입해 발에 밀착시키는 혁신적인 펌프(Pump) 테크놀로지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김서현 기자

TG-C 임상 벽 못 넘은 코오롱티슈진… 10월 반전 기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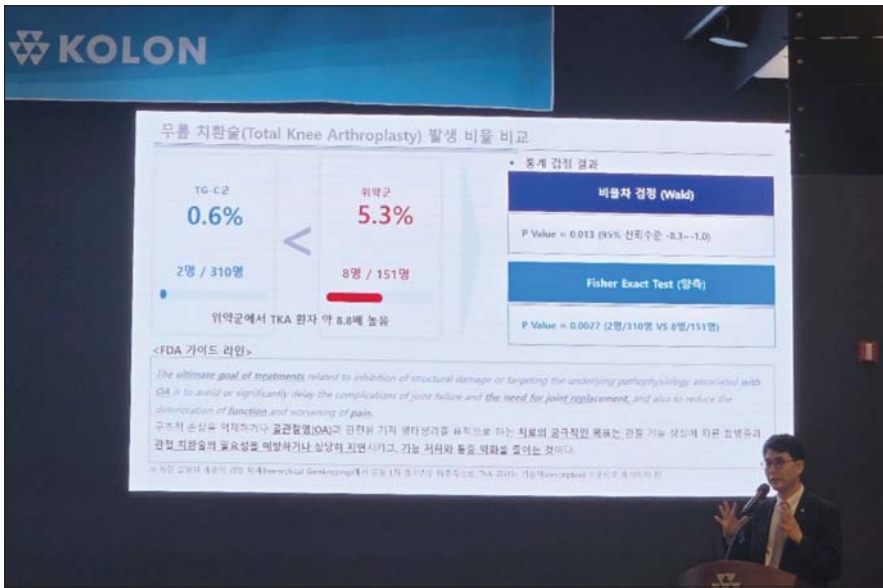
치료제 1차 평가지표 달성 실패
약효 확인, 약물 차별성은 입증 못해
2번째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촉각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후보물질 ‘TG-C’ 미국 임상3상 첫 번째 탑라인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회사측은 이번 결과를 ‘임상 실패가 아닌 절반의 성공’이라고 규정하며 개발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다만, 1차 평가지표 달성 실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오는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 및 2028년 상업화 추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코오롱티슈진은 ‘TG-C’ 관련 향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문종·전승호 공동 대표,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스미스앤네피 출신으로 새롭게 영입된 앤디 웨이먼 최고의학책임자(CM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우선 TG-C는 통증 완화, 관절기능 개선 등 약효는 확인했으나 역대급 위약 효과로 약물 차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코오롱티슈진 기자 간담회 모습.

TG-C 투여군은 12개월 시점 통증 평가(VAS)에서 -38.6점, 관절기능 평가(WOMAC)에서 -26.34점을 기록해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위약군에서 역시 12개월 시점 VAS -39.1점, WOMAC -27.57점으로 강력한 증상 개선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승호 공동 대표는 “TG-C 자체의 효능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수개

월 내로 위약 효과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차 평가지표 미달로 인한 이후 일정 연기 가능성도 인정했다. 전 대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허가 및 상업화 전략을 재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일각에선 TG-C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이 일부 성과만 부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자가 느끼는 통

증이나 관절기능 개선 효과는 위약과 차이가 없는데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가 적게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임상 결과에서 TG-C 투여군의 골관절염이 악화돼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310명 중 2명(0.6%), 위약군의 해당 환자는 151명 중 8명(5.3%)이다. 두 군의 차이는 8.8배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전 대표는 “통증과 기능 지표에서는 위약과 차이가 없는데 무릎 인공관절 환자 비율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나왔다”는 점 자체가 이 데이터가 매우 특이하다는 방증이라며 “윤리적 이유로 임상 중 환자들이 위약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원시 데이터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무릎 인공관절 환자 발생률 차이는 향후 규제 기관 설득, 상업화 이후 보험 등재 등 경제성 평가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10월 발표될 두

번째 탑라인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첫 번째 결과와 10월 두 번째 결과는 동일한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됐지만 서로 다른 임상시험기관, 평가자, 환자군으로 구성됐다. 각각 2026년 4분기, 2027년 1분기에 최종 임상결과보고서를 수령한다는 목표다.

전 대표는 “독립된 시험인 만큼 이번과 같은 역대급 위약 효과가 재현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결과 발표에 앞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불거진 ‘미공개 내부 정보 유출 및 내부 통제 실패’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전 대표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내부에 공유한 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왔다”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블랙 피리어드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주가 변동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코오롱티슈진은 향후 임상4상, 적응증 확대 등 후속 단계를 지속 추진해 개발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LG생진, 북미서 유시몰·더크렘샵 알렸다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참가
유시몰 부스, 상위 5개 부스 선정

LG생활건강이 글로벌 뷰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3~15일(현지 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는 북미 최대 뷰티 박람회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 유통사 등이 방문해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가 이뤄진다.

LG생활건강은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 K뷰티 브랜드 ‘더크렘샵’ 등을 선보였다.

코스모프로프에 처음 참가한 유시몰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강렬한 보라색으로 부스를 꾸몄다. 대형 치약 모형을 설치해 브랜드를 알렸고 치아 미백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백 체험실도 운영했다. 특히 보색 원리로 치아 미백 기술을 구현한



지난 13~15일 미국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에서 ‘더크렘샵’(왼쪽)과 ‘유시몰’(오른쪽)이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의 치약 연구개발 역량을 소개했다.

그 결과 유시몰 부스는 코스모프로프 공식 콘텐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서 ‘상위 5개 부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더크렘샵’은 LG생활건강의 북미 자회

사로, 이번 행사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최초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도 이어갈 예정이다. ‘히트 업 글로우 업’, ‘쿨 쿨치’ 등은 한국식 스킨 케어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마스크 제품이다. /이청하 기자

올리브영, AI 평가로 개발 인재 발굴

개발 직군 경력직 공개 채용

CJ올리브영이 개발 직군 경력직을 공개 채용하며 전형 과정에서 ‘인공지능 과제’를 신설한다.

올리브영은 오는 8월 9일까지 ‘인공지능 인재 우선 채용’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커머스 플랫폼 엔지니어(0명) ▲코어 플랫폼 엔지니어(0명) ▲AI 추천 시스템 엔지니어(0명) 등이다. 지원 조건은 유관 경력 2년 이상이다. 전형 일정은 서류, 인공지능 과제, 1차 면접, 온라인 인성검사 및 2차 면접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채용에서 처음 도입하는 인공지능

과제를 통해 올리브영은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 결과물을 포함해 문제 정의 방식, 인공지능 활용 및 프롬프트 작성 과정, 반복 개선 과정, 결과 검증 방식 등을 구조화해 평가할 예정이다. 크래프톤이 개발한 채용·평가 솔루션 ‘코파 프로브’를 활용한

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AI 과제 전형을 통해 ‘AI 네이티브’ 인재를 찾아 육성에 리테일테크 혁신을 지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비타500으로 청년 응원

알바몬과 한정판 라벨 이벤트 진행

광동제약이 청년아르바이트생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타500’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함께 ‘레벨이 다른 라벨 알바’를 진행한다

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비타500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는 아르바이트사. 총 5명을 선발하며 각각 일급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해당 라벨 부착으로 완성된 비타500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각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청년들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JW신약, 케르티올 크림 각질개선 효과 입증

응답자 99%, 2주 사용 후 효과 체감

JW신약은 뷰티 인플루언서 설문조사에서 듀크레이 ‘케르티올 컨센트레이트 크림’의 각질 관리 기능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각질, 피부 건조 등에 쓰인다. 저자극 제형과 성분을 조합해 피부 표면을 매끄럽고 편안하게 가꿔준다. 끈적임 없는 사용감과 빠른 흡수력을 갖춰 하루 2회 고민 부위에 가볍게 바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뷰티 매거진 ‘싱글즈’와 함께 뷰티 인플루언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가 ‘2주 사용 후 각질 개선을 체감했다’고 대답했고 모든 참여자가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 93%가 일주일 이내에 거칠고 두꺼운 각질이 보다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을 체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는 ‘1~3일 이내’에 빠른 변화를 느꼈다.

케르티올 사용 이후 경험한 체감 변화로 각질 개선(75%)이 가장 많이 나타났



듀크레이 ‘케르티올 컨센트레이트 크림’ /JW신약

다. 건조함 개선(52%), 오돌토돌한 피부결 개선(23%), 보습으로 일시적인 가려움 완화에 도움(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효능은 물론 제형의 특징점도 파악됐다. 응답자 63%가 ‘산뜻하게 흡수되었다’고 평가했다.

JW신약 관계자는 “뷰티 전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케르티올 컨센트레이트 크림에 대한 실제 사용자의 사용 후기를 직접 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피부 고민이 많은 소비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듀오버스터 신제품 치약 선택

자극적 사용감 줄이고 개운함 더해

동아제약이 구강 건강 제품군을 확대하며 웰니스 시장으로 브랜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동아제약은 구강 관리 브랜드 듀오버스터에서 ‘맥스프레스 치약(사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녹색층과 흰색층으로 구성된 이중 제형이 특징이다. 녹색층에는 구취 제거 등 구강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녹차엑스, L-멘톨, 유칼립투스 오일 등을 처방했다. 흰색층은 카모마일 유래 성분, 비타민B6 등을 함유한다.또 불



소는 최대 함량인 1450ppm으로 더해졌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자극적인 사용감은 줄이고 개운함은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강한 자극을 상쇄함으로 인식하던 기존 치약과 차별화한 제품으로 단순 위생은 물론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월 매출 추이
252,463,204원

평균 수익률
32.64%

잘되는 가게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매출 공개 · 수익률 공개 · 점주 인터뷰로 확인하는
으뜸스시의 경쟁력

전체 **37**개 매장 중 **23**개 역대 매출 기록

7/22 (수) 37호점,
으뜸스시 부산명지점 오픈!

1

역대 최대 매장 매출

2억 5천만 원대

사례

2

역대 최대 하루 매출

1,099만 원대

사례

3

역대 최대 수익률

32.64 %

사례

4

역대 최대 세전 이익

8,366 만 원

사례

※ 실제 매장 사례 기준 / 지점 · 시기별 상이



왜 지금,
회전초밥인가?

외식업 내
낮은 경쟁 밀도



자동화
운영 시스템

자동화 기반으로
운영 부담 완화



초보 창업자도
가능

본사 교육 · 오픈 ·
사후 관리 체계 지원



서울 및 전국
상권 창업

생활권 중심
입지 상담



창업상담 **1644-0622**





신현송 한은 총재, EMEAP 총재회의 참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인공지능(AI) 확산이 경제구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한국은행은 21일 신 총재가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1차 EMEAP 총재회의'와 '제15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 수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농식품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서 K-푸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고유의 식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행사에서는 장독대를 비롯해 전통술 양조에 쓰이는 소줏고리 등도 전시된다. 농식품부는 "세계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계의 유산이자 한국의 긍지인 K-식문화와 K-푸드를 알리기 위해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부산항만공사, 24일까지 '항만안전문화주간'

부산항만공사가 이달 24일까지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한다. 부산항 내 안전문화 확산 및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항만 안전 재해예방 캠페인, 항만안전점검관 합동점검, 항만관계자 역량강화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항만공사



효성, 국가유공자에 여름 보양식 300세트 전달

효성은 중복을 앞두고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삼계탕·삼복죽 300세트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장효정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정원 효성 전무가 지난 20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효성



고려대 동문 부부, 후배 장학금 10억 출연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출신 동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식품공학과 동문 김병관(79학번)·이윤경(80학번) 부부가 'BKYN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며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은 고려대 식품공학과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대

“타는 즐거움 선사”… 차세대 스포츠 ‘CB1000F’ 선포

혼다코리아, 국내출시 행사 열어
헤리티지 귀환… 클래식 디자인
4기통 엔진, 균형잡힌 주행성능

“4기통 엔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시트 안정성과 코너 주행에서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21일 경기 성남시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서 진행된 차세대 레트로 스포츠 네아키드 모터사이클 ‘CB1000F’의 국내 출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출시를 앞두고 사전 주행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최근 혼다코리아가 국내 자동차 사업 종료로 발표한 이후 갖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표이사는 “한국은 모터사이클 사업에 대한 제도와 주행 환경 등 정착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가 21일 경기 성남시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서 진행된 ‘CB1000F’ 출시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브랜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보다 정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전자제어시스템으로 일상부터 스포츠라

이당까지 ‘타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사전 예약에서 100명이 넘는 고객이 신청한 것도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B1000F는 ‘헤리티지의 귀환’을 콘

기보, 원자재 수입기업 금융지원

수입협회-하나은행과 ‘맞손’

총 500억 규모 보증료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수입협회, 하나은행과 ‘수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고환율·고유가 등 대외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수입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 수입품목의 원활한 조달을 통해 국내 공급망의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수입협회는 원·부자재와 핵심부품 수급에 금융 지원이 필요한 수입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7억원을 기반으로 추천기업에 총 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보는 보증료 감면(0.2%p ↓, 2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보증료(0.7%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협회가 추천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20일 한국수입협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이정현 상무, 한국수입협회 운영미 회장, 기보 이재필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원·부자재를 비롯해 첨단소재, 핵심부품 등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은 환율·유가 변동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수입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주요 원·부자재와 핵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공급망 안정과 수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산업진흥원, 경영실적평가 ‘우수’

2년 연속 달성… 동일 기관 중 1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정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국내 로봇산업 육성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5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진흥원은 동일 유형 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진흥원은 정부의 로봇산업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진흥원은 정부의 핵심 로봇 정책인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미래 로봇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첨단로봇 실증지원센터 운영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굵직한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내 로봇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은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산업계의 협력 덕분”이라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AI와 휴머노이드 등 미래 로봇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기업 성장 지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견련, 12주년 맞아 중견기업 인식확산

열두 글자 응원 온라인 행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인식 확산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 출범 1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도약의 중심, 중견기업 열두 글자 응원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2014년 7월 22일 중견기업법 시행과 함께 법정 경제단체로 출범했다. 10년 한시법으로 출발한 중견기업법은 지난 2023년 3월 존치 필요성에 대한 국회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에 기반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현재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견기업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중견련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중견련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중견기업 응원 메시지와 유튜브 ‘구독’ 및 페이스북 ‘좋아요’ 인증 사진을 댓글로 남긴 12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5만원권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국민대학교는 해외 기관 10곳과 연구·교육 협력 양해각서와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민대

국민대, 해외기관 10곳과 연구·교육 협력

대만, 태국, 덴마크 등과 ‘맞손’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대만과 태국 대학, 글로벌 기업 등 해외 기관 10곳과 연구·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민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교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EBISION 2026’ 기간 양해각서(MOU) 6건과 협력의향서(LOI) 4건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OU 체결 기관은 국립대만대학교와 대만 아시아대학교, 동하이대학교, 국립중산대학교, 태국 킹몽쿠트공과대학교 노스방콕, 전력·전자 기업 텔타일

렉트로닉스다.

덴마크공과대학교와 그리스 아테네 국립공과대학교, 스페인 무르시아대학교, 스웨덴 툴레오공과대학교와는 연구 협력을 위한 LOI를 맺었다.

국민대는 이들 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학생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교와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협약은 국민대가 개최한 제2회 국제 정보처리연맹(IFIP)WG8.4 국제 심포지엄 기간 이뤄졌다. 행사에는 한국과 덴마크, 일본 등 11개국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lhi@

인사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상표심사정책과장 김지맹 △유기화학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엄태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교육기획과장 김근모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기업결합과장 장주연

부음 ▲김숙씨 별세, 김홍규씨 아내상, 김도연씨·김도형(한화라이프랩 FPI)씨 모친상, 박장우(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전무)씨 장모상, 박세원 학생 외조모상=21일 오전 10시2분,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054-434-9444

관성에 갇힌 공공조직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공공조직은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핵심 행정체제다. 수많은 공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직에서는 업무가 특정 현안에 편중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보다는 수동적인 업무 처리가 반복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공공조직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와 당면 현안 처리에 조직 역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만성적인 업무 과중은 공무원의 직업 관련 소진(burnout)을 심화시키고,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려는 동력을 약화시킨다. 결국 조직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처리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적극행정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행정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다른 양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중앙정부의 평가와 감사, 각종 지

침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주민의 요구보다 상급기관의 기준에 맞춘 업무수행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 지시된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소극행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관리직에서는 행정적 재량권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로 이어지거나, 산하기관 운영과 인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공공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제시한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머튼의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조직 구성원이 규정과 절차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목표 대치(Goal Displacement)'는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정책 목표보다 규정 준수와 절차 이행 자체가 조직의 목표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 문화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 합리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수동적 행정, 지방정부에서는 소극행정과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고착될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인 조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처와 지방정부의 업무량과 업무 편중 정도, 조직 구성원의 소진 수준,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문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조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진단 이후에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잦은 순환보직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여 실무 역량을 높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평가와 감사도 단순한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적극행정을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통제와 책임성은 유지하되, 지역의 창의성과 정책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조직은 규정을 집행하는 조직을 넘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활력은 개인의 헌신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관성에 갇힌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와 조직문화를 함께 바꾸어야 한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하브) 대표

반도체 설국열차, 엔진이 꺼진다면



기지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에서 열차의 심장엔 엔진칸이다. 앞칸의 지배자도, 꼬리칸의 승객들도 결국 엔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한국 경제라는 열차에서 그 엔진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반도체 수출은 221억 달러(약 32조6000억원)로 1년 전보다 180.6%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3%에 달했다. 이를 두고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추포를 터뜨릴 만한 성적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숫자는 뒤집어 읽어야 한다. 한 품목이 나라 수출의 5분의 2를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

다. 엔진칸의 굉음이 커질수록 나머지 칸의 침묵도 깊어지고 있다.

쏠림의 위험은 이미 예고편을 보여줬다. 외국계 증권사의 고점론 보고서 한 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고 코스피는 사흘 만에 두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았다.

한국은행이 실물 반도체 경기는 최소 내년까지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업황이 말짱해도 심리 하나에 나라 경제 전체가 출렁이는 것, 그것이 외발로 선 경제의 체질이다.

특히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2019년 메모리 다운턴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이 10.3% 감소하며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뒷걸음질쳤던 기억은 그리 멀지 않다. 지금의 슈퍼사이클도 언젠가는 변곡점을 맞는다. 수출의 40%를 책임지는 엔진이 출력을 줄이는 순간 열차 전체가 감속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이번 호황을 어떻게 쓰느냐다. 미국은 보조금으로 공장을 끌어모으고 일본은 수조 엔을 직접 투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음 달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화답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클러스터의 입지와 투자 방향까지 정부가 그리는 방식이 기업엔 되레 부담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지원이 결국 하나의 엔진으로만 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 최대 수출은 미래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과거의 성적표에 가깝다. 역대 최대 실적이 벌어진 지금이야말로 두 번째, 세 번째 엔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인 이유다.

설국열차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엔진을 지키는 대신 열차 밖으로 나가는 길을 택한다. 엔진 하나에 모든 것을 건 질서는 그렇게 무너졌다. 엔진이 하나뿐인 열차에게 설원은, 언제든 멈춰 설 수 있는 별판일 뿐이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2일 (음 6월 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0년생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72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84년생 어떤 운이든 흐름이니 좋습니다.



소

49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1년생 자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73년생 반드시 뜻을 이룰 것 입니다. 85년생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로랑어

50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62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74년생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86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미루세요.



도끼

51년생 금전거래를 하면 매우 길합니다. 63년생 너무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7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87년생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조

52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64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76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수가 있습니다. 88년생 감정 컨트롤에 신경을 쓰세요.



뱀

53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65년생 심신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7년생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지겠습니다. 89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말

54년생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마세요. 66년생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90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습니다.



양

55년생 주위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67년생 하는 일이 조금씩의 발전은 있었을니다. 79년생 자금회전이 어렵습니다. 91년생 전전긍긍하면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68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0년생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92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텐데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습니다.



닭

57년생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69년생 가족에게 고민을 솔직히 얘기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욕심을 과감히 버리세요.



개

58년생 무리하게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70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82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 할 것입니다. 94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세요.



돼지

59년생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71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5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위대한 도전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였다. 지도에도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꿈꿨다.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들은 말로만 듣던 바다 끝을 찾아 나섰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인류의 지평을 넓혔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인류에게 마지막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곳이 있었다. 바로 남극이었다. 얼음과 폭풍, 혹한의 땅이 남극이었다. 인류는 결국 남극을 정복했지만, 그 과정은 극적이면서 가혹했다. 남극 정복이라고 하면 흔히 1911년 12월에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을 떠올린다. 그 이면에는 아문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끝내 얼어붙은 땅 위에서 생을 마감한 로버트 스콧 대령의 비극이 자리하고 있다. 스콧 대령은 영국의 자존심을 걸고 남극으로 향했다. 남극으로 가는 도중에 스콧 대령은 아문센도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문센의 개 썰매와 달리 스콧은 조랑말과 모터 썰매로 아문센보다 더 길고 험한 경로로 남극을 향했다. 스콧 대령과 대원들이 남극에 도달한 날은 1912년 1월 17일이었다. 마침내 남극점에 도달한 그들이 본 것은 아문센이 꽂아놓은 노르웨이 국기였다. 33일 전 아문센이 먼저 남극을 정복한 것이다. 허탈함을 안고 귀환하는 길에 스콧 일행이 마주친 것은 비극이었다. 대원들을 수색대가 발견했을 때는 8개월이 지난 뒤 모두 시신이 되었다. 스콧은 마지막 순간까지 학문적 가치가 있는 과학 표본들을 모두 보존했고 일기로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다. 남극 정복에서 승리한 것은 아문센이지만 후세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똑같이 위대한 탐험가로 기억한다. 남극점에 미국이 세운 관측센터는 아문센-스콧 이름으로 두 사람을 기리고 있다. 스콧 대령은 비극은 실패가 아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위대한 도전으로 남아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대학별 평가항목 9월 모평 결과 상향·적정·안정 배분

수시 원서작성 체크포인트

대입 수시 원서접수 약 7주 남아
데이터 기반 지원전략 필요한 때
정시지원 가능성 미리 설정해야

“6장 초안 먼저 마련한 뒤 9월 모의평가 결과 반영해 확정”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약 7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가 전까지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 최근 입시 결과, 대학별 전형 변화를 토대로 수시 원서 6장의 초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1일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다.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할 경우 내신 등급뿐 아니라 대학별 서류 정성평가 반영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대학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과목 선택 이력 등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6월 모의 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시스

건국대의 경우 2027학년도 수시에서 KU 지역균형전형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토대로 학업·진로 역량을 평가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전체를 활용해 학업·진로·성장·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도 미리 정해야 한다. 3·5·6·7월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종합해 현재 정시

지원 가능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 지원 대학을 나누야 한다.

이투스는 수시 6장 가운데 정시 지원 가능성보다 높은 대학에 2~4장, 비슷한 대학에 1~2장, 낮은 대학에 1~2장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수시 합격으로 정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수능 이후 면접이나 논술을 실시하는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대학 수가 아니라 전형 수를 기준으로 최대 6회까지다. 같은 대학에서 여러 전형에 지원해도 각각 1회로 계산된다. 또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하거나 총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 지원 대학뿐 아니라 전형별 합격 가능성과 정시 지원 제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2~3년간 입시 결과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학이 공개한 최종 등록자 50%·70% 합격선뿐 아니라 두 점수의 간격과 총원율, 모집 인원 변화,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 입시 결과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형이 지난해와 달라진 대학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대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 반영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은 30%에서 20%로 낮췄다. 학생부종합전형인 ‘세종창의인재전형’ 명칭도 ‘세종인재전형’으로 바꿨다.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인문계

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 등급 합 5에서 6으로 완화한다. 중앙대 논술전형은 일반형과 창의형으로 나뉘며 지원 자격과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달라진다. 인하대 논술우수자전형도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며,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은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인다.

한국외대는 논술전형에서 LD학부와 L·T학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 등급 합 3’에서 ‘합 4’로 완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의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을 바꾼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고 싶은 대학만 정하기보다 성적과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상향 지원 대학을 구분해 원서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 가능성을 수정한 뒤 수시 지원 대학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인천시, 인천신항 ‘해상풍력 허브’ 구축

유지보수 지원부두 조성

인천광역시와 인천신항에 해상풍력 유지보수 지원부두를 조성하기 위한 항만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20일 고시되면서, 인천신항 1~2 동측부지를 신규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 해상풍력 단지 배후에서 유지보수 산업의 기반이 될 항만 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민선 9기 공약에 맞춰 이곳을 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로 키울 계획이다. 관련 기업들을 모아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짓고 지원부두 사업화를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현재 개발사 및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장 수요와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산업 전망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세

울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지원부두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항만 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민간투자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민선 9기 임기 내 착공을 실현하고, 오는 2032년까지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인천을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는 지원부두를 기반으로 통합관제센터, 안전훈련센터, 자재창고 및 부품 교체·정비 시설 등을 집적하고, 드론·로봇활용, 인공지능기반 예측진단 등 미래 기술분야의 연구·실증까지 연계하는 종합 산업 플랫폼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확대

155곳 선정… 전년대비 32곳 증가
돌봄·교육·환경 등 지역사회 활동

서울 소재 대학 동아리 155곳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6000여명이 오는 11월까지 돌봄과 교육,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2026년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동아리 15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참여한 123곳보다 32곳 늘었다.

올해 사업은 동아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기획형’ 114곳과 서울시 행사·정책 현장에 참여하는 ‘참여형’ 41곳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획형 동아리는 복지 26곳, 교육 30곳, 문화 49곳, 환경 9곳으로, 전공과 동아리 특성에 맞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건국대 ‘건국금융연구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금융교육 멘토링을 진행하고 화폐박물관 방문 활동을 운영한다. 숭실대 제어학회 ‘ACC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제어 기술을 소개하고 코딩 체험교실을 연다. 중앙대 ‘시류즈’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외대 ‘취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며, 삼육대 ‘한 페이지 가 될 수 있게’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과 책 나눔 활동을 운영한다.

참여형 동아리는 서울시 행사와 정책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연합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피티스타’는 지난달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시민 대상 기업 전시 부스 안내를 맡았다. 연합 동아리 ‘숲속의 화실’은 재활용 종이와 천

연 재료를 이용한 카드·책갈피 제작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를 운영했던 동아리 부대표 정석환 씨(건국대 산업경영정보공학과 3학년)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한 동아리가 서울시의 대규모 행사에서 직접 부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라며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예술을 매개로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사회기여 활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참여형 동아리들은 앞으로 서울아외도서관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차 없는 잠수교 무벽무벽 축제, 서울시립과학관 행사 등에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학 동아리 123곳이 모두 1661차례 활동했으며, 누적 참여 시민은 9만4596명으로 집계됐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행정·문화 거점 ‘경기융합타운’ 완성

복합 커뮤니티 공간 활용 방침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정원 개발을 끝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이 모여 약 5000명이 상주 근무하는 복합시설의 이름이다.

당초 이곳은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되으나, 행정기관 간 협

업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개발 방향을 융복합타운 형태로 전환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유관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11년 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15년에 걸쳐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로, 기관들이 물리적 거리를 좁혀 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도민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융합타운 전경. /경기도

도는 경기정원과 녹지공간, 소토광장 등을 타운 중심부에 배치해 휴식과 교류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행정 기능을 넘어 도민 참여와 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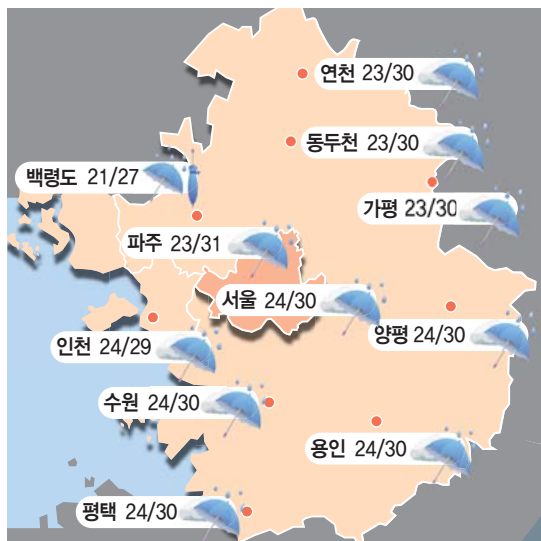
해돋이 / 05:28 | 해질 / 19:49

7월
22일(수)
음력: 6월 9일

수도권 날씨

24 ~ 3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中 류샤오밍 한반도특별대표, 韓 청년우호대사 대표단 접견
▲“美 민주당, 이란전 예산 통과 막아 트럼프 확전 저지 총력”

▲홍해 봉쇄시 세계 원유공급 7% 감소… “한국 수입 33% 차질”
▲中, 주중 필리핀 대사 초치… “남중국해 도발에 강력 항의”



▲트럼프-시진핑 회담 무색… 中 6월 미-브라질 대두 수입 차이 더 커져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막… 중동전쟁 중단 촉구할 듯

/사진 뉴스



일본 유제품기업
오하요유업
“한국, 핵심시장”
L1



Life

코오롱티슈진
임상 3상 실패
10월 반전 기대
L2



검색창 넘어 AI로… 데이터·전력·자본 엮어 미래 설계한다

CEO 와칭

이 해 진 네이버 창업자

검색으로 기업을 키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AI 시대를 맞아 다시 경영 전면에 섰다. 서비스 혁신을 넘어 AI 인프라와 글로벌 협력까지 직접 챙기며 네이버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올해 약 7년 만에 네이버 이사회에 복귀한 이 창업자는 최근 AI 관련 글로벌 협력 확대에 직접 나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스 황과 만나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최근에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 본사 방문 가능성도 제기됐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단순한 대외 일정이나 AI 시대를 대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서버에서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확보 등 인프라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창업자가 직접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창업자의 경영 행보는 과거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 네이버가 검색과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을 앞세워 국내 플랫폼 시장을 키울 당시 이 창업자의 역할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시대에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자원,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이 창업자의 역할도 바꾸고 있다. 네이버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최수연 대표가 사업과 서비스 실행을 총괄한다면, 이 창업자는 장기 투자와 기술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달 8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 스ك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네이버 창업자, 최근 경영 전면에 복귀
AI시대 대비… 글로벌 협력 구축 나서
지난달, 젠스황과 만나 AI 협력 논의
AI 기반 대화형 검색 등 서비스 구체화

소프트웨어만으로 AI 경쟁력 부족해
컴퓨팅 자원·전력 인프라 확보 중요
장기 투자, 해외 파트너십 구축해야
향후 10년 좌우할 미래 전략에 집중

큰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네이버의 AI 전략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 탭’을 출시한 데 이어 쇼핑과 부동산, 건강 등 분야별 AI 에이전트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넘어 이용자의 예약과 구매, 정보 탐색 등 실제 행동까지 지원하는 AI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AI 경쟁은 서비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GPU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능력이 필요하다. AI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연산 자원도 함께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타는 수십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도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자체가 기업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AI 인프라 수요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 역시 AI 팩토리 구축과 데이터센터 확대 등을 미래 핵심 과제로 제시하

이해진 창업자 프로필

1967년 서울 출생
서울대 전자계산기공학과 학사
KAIST 전산학 석사

1992년 삼성SDS 입사, 검색엔진 개발 프로젝트
1999년 네이버 창업자, 대표이사 사장
2001년 엔에이치엔(NHN) 공동대표이사 사장
2004년 엔에이치엔 최고전략책임자, 이사회 의장
2007년 엔에이치엔 Japan 이사
2012년 엔에이치엔 Japan 회장
2013년 라인(LINE) 회장, 네이버 이사회 의장
2017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2025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며 AI 기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창업자가 AI 인프라 확보를 직접 챙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AI 시대에는 기술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대 창업자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AI 시대 창업자는 기술과 자본,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이 창업자의 행보 역시 네이버의 장기 AI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은 단기간에 끝나는 승부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좌우할 인프라 경쟁”이라며 “창업자가 직접 글로벌 협력을 챙기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1999년 네이버를 창업한 이 창업자는 국내 검색 시장을 개척하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인물이다.

그러나 AI 시대 들어 그의 역할은 다시 변화하고 있다. 검색 서비스를 만드는 창업자에서 AI 인프라와 글로벌 협력 체계를 설계하는 전략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 네이버의 경쟁력은 AI 서비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자원, 글로벌 기술 협력, 장기 투자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업계가 최근 이 창업자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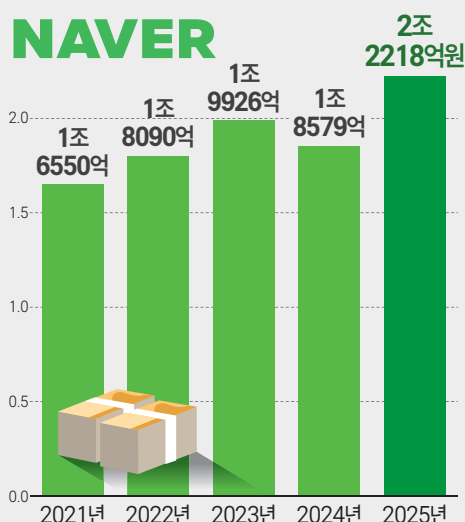
네이버가 AI 시대에도 국내 대표 플랫폼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창업자의 시선이 더 이상 검색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시대 그의 무대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프라와 투자, 그리고 글로벌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 R&D 투자비용 추이



자료/네이버



젠스황(왼쪽) 엔비디아 CEO가 지난달 8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웹툰에 자막을 넣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구 亞 챔피언스리그 출전 방식 확정…EASL 성적으로 출전권 획득
▲이정후, 두 경기 연속 안타…샌프란시스코는 허무한 끝내기 패배 /사진 뉴시스

▲FIFA, 스페인-아르헨티나 ‘난투극’ 조사… 징계·윤리 검찰관 임명
▲중앙대, 3개국 어린이 함께한 ‘코린코’로 국제 단편영화제 진출

▲박나래 협박한 전 매니저 구속 송치…공갈미수 혐의
▲바둑 신진서, 최종국서 AI 카타고 제압…2승1패 ‘역전승’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